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8879
baeky@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오준 유엔 대사 "북핵" 주제로 4일 MIT에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준 유엔대사가 오는 3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MIT에서 “북한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핵실험과 로켓 발사, 개성공단철폐, 유엔대북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상태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준대사는 지난 강연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적이 있으며 이어 그는 “남북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평통 홍보분과 이현경 씨는 “특히 이번 초대강연에서 한반도의 현실정, 그리고 주변국의 과제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장소: MIT (32 Vassar Street, Cambridge MA (Classroom: 32-155))
일시: 3월 4일(금.) 저녁 6시 30분
bostonkorean@hotmail.com



브랜다이스 대학교와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국악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오는 3월14일부터 1주일 동안 개최된다. 대금 원완철 씨

3월 보스톤 대학가 국악 명인을 만나다

한국 대표 국악인 5인 방문 강의와 연주
보스톤 예술협회, 브랜다이스대학 공동주최
브랜다이스 2016 국악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악과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 저변 확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의 대표 국악인 5인이 3월 보스톤 대학가를 방문 캠퍼스에 머물면서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국악에 대한 저변 확대에 나선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와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국악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오는 3월14일부터 1주일 동안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쟁과 장구를 맡은 이태백, 가야금 이지영, 대금 원완철, 피리 이석주 그리고 판소리 임현빈씨 다섯명의 국악인들이 참여해 연주를 선보인다. 서울대 국악과

의 미국인 교수 힐러이 편침·성이 사회를 맡아 국악에 대해 설명한다.

14일 월요일부터 브랜다이스 대학 슬로스버그 리사이틀홀(Slosberg Recital Hall)에서 하루에 열리는 영어, 인류학, 연극학, 역사학 등 과목의 수업에서 국악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루에 평균 3개 강좌가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한인들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강의 일정은 www.kcsboson.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2016년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826**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826는 유나이티드항공 요금입니다.
2016년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전에는 예약되어야 하며,
2016년 3월 3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거래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o@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가야금 명인 서울대 이지영 교수 웰슬리 공연

실크 현을 위한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동서양을 잇는 가야금 현대음악의 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야금의 깊은 맛을 보스톤에서 가야금 명인의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 가야금의 명인 이지영 서울대교수가 참여하는 가야금 현대음악 컨서트가 오는 3월 16일 수요일 웰슬리 대학교 주엣 아트 센터 오디토리움(Jewett Art Center Auditorium)에서 열린다. 브랜다이스 대학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 국악 레지던시 시리즈를 위해 방문하는 이지영씨가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보스톤의 미국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다.

전통 산조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지영 교수는 한국 가야금의 큰 산 황병기 교수의 제자로 현재 가야금 산조 무형문화재 대상으로 고려중에 있는 명인이다.

이 교수는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가야금으로 현대 즉흥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제자 김도연씨와 듀엣으로 제러드 레드몬드의 <영영 사그라지는 불>을 처음으로 연주한다. 이곡은 젊은 작곡가 제러드 레드몬드(Jared Redmond)가 꺼져가는 불꽃을 묘사한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가야금 듀엣 곡이다.

이에 앞서 미국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Thomas Osborne)이 스페인의 시인 프레드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redrico Garcia Lorca)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이지영씨에게 헌정한 곡을 연주회 첫곡으로 연주한다.

김도연씨는 그 외에도 미국의 재즈음악과 국악의 흥미로운

만남인 가야금과 피아노의 즉흥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리더인 현악 사중주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주디스 아이센버그(Judith Eissenberg)와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Chase Morrin)이 함께 연주한다.

이들은 한국 작곡가 김대성의 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곡을 연주한다. 이 곡은 기형도 시인의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중 4개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다. 마지막 곡으로는 제러드 레드몬드의 신곡 <하얀 수의>를 연주한다. 이는 같은 제목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위한 곡이다.

시와 음악의 결합으로 작곡된 최근 곡들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는 웰슬리 대학의 바움펀드(Baum Fund)와 보스톤 예술협회를 통한 익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연주는 한국 가야금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절묘한 가야금 음색에 담아 보스톤의 청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회 정보는 <http://www.wellesley.edu/event/node/74716> 에서 찾아 볼수 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781) 283-2028로 문의하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웰슬리 칼리지 주엣 아트 센터 오디토리움 (Wellesley College Jewett Art Center Auditorium - 106 Central Street, Wellesley, MA 02481)

한편 3월14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되는 브랜다이스 대학에서는 국악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지영 교수를 포함한 다섯 명의 국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미국인 교수인 힐러리 핀첩-성이 사회를 맡는다.



한국 가야금의 명인 이지영 서울대교수

브랜다이스 대학의 문학, 철학, 음악 분야의 8개 수업에서 한국 전통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같은 기간 동안 국악 콘서트와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강의 및 전체 행사 일정은 www.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1주일 동안 여러 학교에서 폭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진행

▶▶1면에 이어서
〈국악, 영혼의 소리〉콘서트는 3월 19일(토)과 20일(일)에 양일 같은 브랜다이스의 슬로스버그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및 세계 무대에서 국악의 입지를 넓히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견 국악인들의 영상화상, 산조, 판소리, 승무, 청성곡, 씨김국, 시나위 등 엄선된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9일에는 아쟁 산조, 20일엔 가야금 산조로 프로그램을 달리한다. 공연 티켓은 일반 20불, 시니어(55세 이상) 15불, 학생 5불에 판매되며 인터넷 www.brandeis.edu/tickets 이나 당일 공연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 미를 주제로 기획된 미술전이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열린다. 유화, 수묵화, 아크릴, 도자기, 조각, 섬유, 주얼리 등 다양한 재료로 21명의 작가들이 한국적인 멋을 담아냈다. 브랜다이스 슬로스버그 뮤직센터 로비에서 전시 중이며, 3월 20일 콘서트 후 작가들의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국악 콘



아쟁과 장구를 맡은 이태백, 가야금 이지영, 대금 원완철, 피리 이석주 그리고 판소리 임현빈씨 다섯명의 국악인들이 참여해 연주를 선보인다

서트를 주최해 온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올해에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와 협력하여 더욱 알차고 의미있는 국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보스톤의 여러 대학에서 국악을 알고 싶어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귀한 기회이니 많은 한인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며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국악은 궁중음악인 정악(正樂)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민속악(民俗樂)에 이르기 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우리의 소리이다. 1주일 동안 여러 학교에서 폭넓은 청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산조, 블루지한 즉흥연주를 연상케하는 시나위, 판소리 심청가를 비롯하여 21세기의 새로운 국악까지 다양한 음악이 연주된다.

editor@bostonkorea.com

주요 행사 일정

- **가야금을 위한 신곡 연주회 (New Sound for Silk Strings):**
3월 16일(수) 오후 7시30분 /
웰슬리 대학교 주엣 아트센터 오디토리움 (Wellesley College Jewett Art Center Auditorium - 106 Central Street, Wellesley, MA)
- **한국 음악 워크숍 (Classical Music of Korea):**
3월 17일(목) 오후 4:30 - 6 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피어스홀 (New England Conservatory Pierce Hall,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 **국악 콘서트 〈국악, 영혼의 소리〉**
공연 1: 3월 19일(토) 오후 8시 (연주 전 강의: 저녁 7시)
공연 2: 3월 20일(일) 오후 4시
브랜다이스 대학교 (Brandeis University Slosberg Music Center - 415 South Street, Waltham, MA)
- **국악 시연:**
3월 21일(월) 오후 6시
하버드 신학대학 앤도버 채플(Harvard Divinity School Andover Chapel - 45 Francis Avenue, Cambridge, MA)
- **미술 전시회 (Landscapes of Soul: Korean Contemporary Art):**
브랜다이스 대학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 로비
(Brandeis University Slosberg Music Center - 415 South Street, Waltham, MA)
기간: 2월 19일(금) - 3월 26일(토) (리셉션: 3월 20일 콘서트 후)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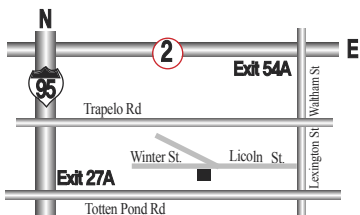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민사회서 통일과 민주화 운동 외로웠다”

학자들 초대해 강연회 하는 박기식 선생 미수 잔치
한국에서는 중앙정보부 근무 미국에선 통일 운동 이색 경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앤도버에 거주하는 박기식 선생이 올해 88세 미수와 결혼 60주년을 맞아 3월 6일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감리교회에서 조지아대 박한식 석좌교수와 함성국 목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는다.

박 교수는 <신앙과 평화문제>를 주제로, 함목사는 <민족문제와 성경의 분부>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게 된다. 강연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강연 후에는 음악공연과 친교의 시간이 마련된다. 박한식 교수는 박기식 선생의 국민학교 제자였다.

박기식 선생은 보스톤 한인사회 원로 중에서는 드물게 통일 문제와 민주화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다. 1972년 로렌스에 정착했던 박선생은 1973년 하버드에서 열렸던 김대중 구명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구명집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레고리 핸더슨 플레츠 스쿨 학장, 제롬 고헨 그리고 일본 황실의 귀족이었던 에드윈 다이사 등 인물이었다.

박기식 선생은 자신이 김대중 전대통령 남

치를 담당하는 1인이었을 수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비록 미국에 와서 임창영, 선우학원 씨등과 만나면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에 몰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중앙정보부 언론대책관이었던. 당시 언론인이었던 이민우 전 중앙통신 기자는 언론 통제를 담당했던 박기식 선생을 생생히 기억했었다.

5.16 쿠데타의 주역이 대구 출신이었기에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군을 제대한 TK인맥이었던 박기식 선생은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 김대중 납치 사건 때의 행동책이 김기환이었는데 그는 주한 대사를 지냈던 성 김 대사의 아버지다. 김기환과 친분이 있어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정보부장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한국에 남게 됐다. 그때 그를 따라갔으면 납치사건에 심증팔구 연루됐었을 것이라 한다.

박기식 선생은 중앙정보부 언론 통제관으로서의 삶에 대해 “소위 본성에서 출발한 삶이 아니었다. 인격을 팔아먹는 일이었다. 구걸하다시피 기자들에게 메달리게 됐다.”며 결국 자신을 위해 정보부를 그만 두게 되었다



올해 88세 미수와 결혼 60주년을 맞은 박기식 선생. 현재 신장투석으로 건강이 예전에 비해 좋지 않다. 앤도버 자택에서 인터뷰 후에 가진 사진 촬영

고 밝혔다.

미국에서 삶은 철저한 소시민이 되자라는 생각에 청소부에서 시작했다.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근무하고 은퇴했다. 그는 늘 아끼는 것을 생활화 했다. 술과 담배를 일절 안하는 그는 골프, 게임 등도 일체 삼갔다.

통일과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한인들과 다름 삶을 영위했던 그는 “눈 뜨고 비벼봐도 대화를 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외로웠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박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돌다보면 이상한 말로 귀착되곤 했었다. 그가 지금껏 “이민생활을 굳건히 지켜왔던 것은 그나마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수 잔치에 초청된 그의 과거 제자 박한식 교수의 강연 <평화와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박기식 선생의 삶을 반영한다. 강연회가 마련된 박 선생의 미수잔치는 지금껏 그 외로웠던 자신의 길을 재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해석된다.

editor@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청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클렌징 오일젤 무료증정

Free Gift

\$44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기력회복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월 1일 매스 프라이머리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주 화요일 슈퍼 투스데이 프라이머리 투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대통령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슈퍼 투스데이 프라이머리가 다음 주 화요일 열린다. 지난 2월 10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화요일 투표가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25명의 대의원, 공화당은 42명의 대의원이 각 후보의 득표에 따라 할당된다.

유권자들은 3월 1일 화요일 정해진 투표 장소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 투표와 더불어 슈퍼 투스데이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접전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승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매사추세츠 투표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클로드즈에 가깝다. 다시 말해 민주당

원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민주당 투표지만 받을 수 있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공화당 투표지만 받을 수 있다. 단 무소속 즉 당을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체크인(Check-in) 할 때 공화당 또는 민주당 투표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투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나 메일로 유권자 등록을 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한인 유권자 중에서 연례 스트리트 리스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in-active) 유권자로 분류되어 투표자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준비된 비활성화 유권자 리스트에서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가 총 16명으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22일 발족했다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창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가 홍순우 관장을 시범단장으로 하는 매사추세츠 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22일 발족했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표 시범단은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소속 각 도장 사범들로부터 12세 이상의 검은띠 유단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정예들이다.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는 먼저 추천받은 후보를 두고 서류심사를 벌인 후 기본동작, 시범 발차기, 품새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선발된 시범단은 저스틴 블레이, 브랜드 돌리, 콜린 메이허 킬레이아, 리나 흥, 제시카 리, 코니 정, 에디 정, 수잔 렌즈, 모레 김, 현운 김, 알렉스 정, 아니카 숙탄카, 이안최, 아비

아 하산, 타일러 버디를리아, 헨리 론스타인 16명이다.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고 한국계를 비롯 다양한 인종구성으로 만들어 졌다.

이들은 추후 7월에 있는 전국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또한 미국사회 곳곳에 태권도를 전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다음은 영어 명단이다.

Justin Blair, Brandon Duley, Colin Maher-Killelea, Lina Hong, Jessica Lee, Connie Chong, Eddie Jeong, Susan Lenz, Mo Re Kim, Hyunwoon Kim, Alex Jeong, Anika Sukthankar, Ian Choi, Aabia Hasan, Tyler Virdinlia, Henry Lonstein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설빔을 입은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붓글씨로 이름을 써보고 있다

한국문화 브루클라인에 뿌리내리다

보스톤 한국학교 설날 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국학교는 지난 2월 13일 연례행사인 설날 잔치를 치렀다. 이번 행사는 보스톤 한인교회의 친교실을 장터처럼 꾸미고 한국학교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 친구들을 초대하여 동네 설잔치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하였다.

설빔을 입은 학생들은 '설날잔치 패스포트'를 손에 들고 공기놀이, 종이접기, 전통문양색칠하기, 윷놀이, 활쏘기, 제기차기, 붓글씨, 뽕기 해보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 체험장소에서 '패스포트'에 도장을 받으며, 설의 유래, 각종 전통놀이에 대해 차근차근 읽어 보고 체험학습을 하며 고유의 설날 놀

이를 즐겼다.

특히 올해는 미술반(지도: 김희진)에서 한 학기동안의 배운 실기솜씨를 '그림 병풍'으로 전시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뿌듯한 만족감을 더해주고 있고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강상철 교장은 해마다 어린이들의 세배를 받고 용돈을 나눠주어 아이들이 즐거운 세배 경험을 하도록 했다. 해마다 가장 인기가 높아 장사진을 이루던 뽕기데이블에 도장 개념을 도입해 세 개의 도장을 받아오면 뽕기를 하나 주도록 했다. 이 결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뽕기를 맞볼 수 있었다.

1시간의 설 체험 후에는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불고기, 잡채, 떡국과 한국과자를 맛보면서 설날을 즐길 수 있

었다.

태권도반만 참가하는 라이프와 버난데 남매는 처음해보는 공기놀이에 재미가 들어 "내년에도 꼭 공기하게 해주세요"라며 신나했고, 몇 해 전에 한국학교 학생이었던 성인반의 에린씨는 남편과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설날체험을 하면서 "6살 된 우리 아이가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떡국을 세 그릇이나 먹는 걸보니, 여기서 태어나도 한국똥줄은 못 속이나 봐요"라며 흐뭇해 했다.

보스톤한국학교는 "바른 우리말, 빛나는 우리 열, 미국 속의 참 한국인"을 교육목표로 하고, 영어판 눈높이(대교) 교재인 '이-높이' 교재를 채택, 4세부터 8학년까지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 보스톤 한국학교 입학문의는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로 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밀알한국학교 봄학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사추세츠 주 첼스포드에 위치한 밀알한국학교는 4주 동안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2월 21일, 2016년 봄학기를 새로 시작하였다.

김현주 교장은 "그동안 수업시간의 부족을 절감하여 이번 학기부터는 수업시간을 매주 일요일 오후로 바꿈과 동시에 세 시간으로 늘려, 보다 깊이있고 세심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 실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강 첫날에는 새로운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를 소개하며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3교시 활동수업 시간에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모두가 관람했다.

김현주 교장은 "작년에 전교생에게 '독도 스토리'라는 만화책을 나누어 주어 읽게 하여서 영상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료나 영

상물을 더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영상을 본 한 학생은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여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제조차 역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에 놀랐다."고 하면서 자료를 더 조사한 후, 독도 에세이 대회에 도전할 뜻을 비쳤다.

밀알한국학교는 이번 학기 활동 수업으로써 영상수업 외에도 한국 음식 만들기, 동요 배우기, 붓글씨 실습, 종이접기 실습, 전통악기 체험, 역사 속 인물 탐구 등의 다양한 문화, 역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생 대비 교사의 수가 많아 소그룹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생 수 다섯 명 이상이 되면 보조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밀알한국학교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김현주 교장(hkimpw@yahoo.com) 혹은 678-516-4974)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밀알한국학교는 학생 대비 교사의 수가 많아 소그룹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생 수 다섯 명 이상이 되면 보조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전문가 같은 4인의 아마추어 여류화가 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4명의 아마추어 여류화가들이 28일부터 렉싱턴 소재 먼로 갤러리에서 〈Out of the Kitchen〉이란 제목의 정물화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여류화가 안영신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그림 지도를 시작해 1년 6개월만에 전시회를 갖게 된다. 이 여류화가들은 여성들의 손끝이 자주 닿는 물건들과 음식들을 대상으로 정물화를 그렸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들은 심예지, 유혜경, 서혜경, 이강미 씨 등 4명이다. 오프닝 리셉션은 3월 5일 오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전시는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전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안영신 화가는 “모두가 아마추어이지만 대단한 열정을 갖고 전문 화가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이 중에는 화가로 발전하실 분도 있는 것 같다” 고 평했다.

안영신 화가는 브랜다이즈와 뉴햄프셔 대학을 거쳐 전문 화가로 활동중이다. 보스톤과 뉴욕에서 해마다 한두 차례 전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 화가는 전작품 매진이란 기록도 두번이나 낼 정도로 작품의 인기가 높다. 올해 6월에는 뉴욕 첼시에 있는 Pleiades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고 2017년 5월에는 보스톤 Galatea Gallery에서 다시 한 번 개인전을 연다.

제목 : Out of the Kitchen

참여자: 심예지, 유혜경, 서혜경, 이강미

장소: Munroe Gallery

1403 Mass Ave., Lexington, MA

전시일정: 2/28 - 3/30

전시시간: 월 - 금, 9 am - 5pm

오프닝 리셉션: 3/5, 6 - 8pm

hsb@bostonkorea.com



4명의 아마추어 여류화가들이 28일부터 렉싱턴 소재 먼로 갤러리에서 〈Out of the Kitchen〉이란 제목의 정물화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병신년(丙申年) 신니엔콰일러 (新年快樂)

21일 차이나타운에서 사자 춤 축제 성황리에 열려

▶▶관련 사진 9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음력설을 맞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축하하는 사자 춤 축제 (Lion Dance Parade)가 지난 21일 차이나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자춤 축제는 음력 설(8일)이 지난 첫 주말인 1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보스톤을 강타했던 주말 강추위로 인해 한주 미뤄진 21일에 개최되었다. 축제의 주인공 여러 마리의 사자 코스튬을 한 사람들은 사자춤을 추며 차이나타운을 돌아다녔다. 이들은 타악기를 치는 악단과 조를 이뤄 차이나타운 안에 입점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액운을 쫓고 행운을 비는 의식을 치렀다.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는 사자들이 가게에 다다르면 가게 주인은 흔쾌히 문을 열어 사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준비한 양배추와 오렌지와 같은 과일들이 준비된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러자 사자들은 양배추를 갈기갈기 찢고 가게를 나섰는데, 한 중국인 관람객은 이러한 의식이 한 해 동안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형형색색의 깃발과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은 노점에서 산 화약을 터뜨리면서 신년 행사를 즐겼다.

이 날 사자 탈춤을 추는 공연자들은 중국계뿐만 아니라 백인이나 라틴계 등 비 중국인들도 다수 참여하여, 사자 탈춤과 설이 미국 사회에 한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중앙대학교 동문회 제20차 정기총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중앙대학교 동문회는 오는 3월13일 오후 5시, 메드포드에 위치한 청기와식당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년 8월 LA에서 열리는 제 13차 북미주중앙대학교 총회 참석과 2018년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본교의 행사참여 방법도 논의 할 예정이다. 이기환 동문회장은 “신입회원과 학생회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보스톤중앙대학교동문회는 지난 2006년 뉴잉글랜드중앙대동문회에서 명칭을 보스톤중앙대동문회로 변경했다.

일시 : 2016년 3월 13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연락처 : 이기환 회장 (781-572-8044)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에서 꼭 해보아야 할 18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백은세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보스톤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명소들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예술, 문화의 집결지이기도 하여 매년 1700만 명의 달하는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인기가 많다. 보스톤에 살면서, 혹은 보스톤에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꼭 해보아야 할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다음은 스릴리스트 (Thrillist)의 기사 “보스톤 버킷리스트 (Bucket List): 죽기 전에 해야 할 33가지” 중에서 보스톤의 주목할만한 명소, 음식, 이벤트 등 18가지를 발췌한 것이다.

1. 탑 오브 더 허브에서 칵테일 한 잔 하기

보스톤의 최고층 건물인 프루덴셜 센터 (Prudential Center)의 52층 탑 오브 더 허브 (Top of the Hub)에서 도시의 경치를 360도로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라이브 재즈 연주를 배경으로 술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50층의 스카й워크 전망대 (Skywalk Observatory)를 방문하면 도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다.

800 Boylston Street, Boston, MA
617-536-1775

2. 보스톤 커먼으로 소풍가기

보스톤 커먼 (Boston Common)은 1634년에 지어진 미국의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이다. 여름에는 프리스비를 하거나 학생 뮤지션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연못에

서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거나 근처의 클라렌돈 스트리트 (Clarendon Street)에 있는 엘레이 버딕 (L.A. Burdick)의 핫초콜릿 한 잔을 마시며 산책을 하기를 추천한다. 또, 바로 옆의 퍼블릭 가든 (Public Garden)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스완보트 (Swan Boat)를 탈 수 있으니 참고할 것.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3. 캔텡 라운지에서의 현대 시 즐기기

매주 수요일 밤 센트럴 스튜어의 캔텡 라운지 (Cantab Lounge) 밖에는 포에트리 슬램 나잇 (Poetry Slam night)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다. 포에트리 슬램 (Poetry slam)이란 말, 음악, 몸짓 등으로 시를 표현하는 현대 시의 일종이다. 공연은 공식적으로 저녁 8시에 시작하지만, 6시 30분 즈음에는 도착하여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캔텡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달의 공연 스케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73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617-354-2685

4. 오베런에서 공연보기

보스톤에서 색다른 공연을 보고 싶다면 오베런 (OBERON)을 찾기를 권한다. 반은 클럽, 반은 극장인 오베런은 늘 비슷한 공연들에 싫증이 난 이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곳이다. 매주 토요일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디스코 버전으로 재해석한 풍자극 더 동키 쇼 (The Donkey Show)를 볼 수 있다.

2 Arrow Street, Cambridge, MA
617-547-8300

5. 하버드 스타디움 방문하기

1903년에 지어진 미국에서 오래된 경기장 중의 하나인 하버드 스타디움 (Harvard Stadium)은 경이로운 건축 공학을 뽐낸다. 하버드 대 예일 풋볼 경기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 경기장을 방문하는 재미도 배가 될 것이다.

79 N Harvard Street, Allston, MA

6. 노스 엔드에서 카놀리 먹기

‘리틀 이태리’로 유명한 노스엔드의 마이크 페이스트리 (Mike's Pastry)는 이미 관광객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카놀리 제과점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노스엔드의 곳곳에 각종 전통 이탈리아 간식을 파는 상점들이 있다. 파르지알리 (Parziale), 모던 (Modern), 마리아스 (Maria's)가 그 중의 몇 곳이다.

300 Hanover Street, Boston, MA
617-742-3050

7. 펜웨이 파크에서 레드삭스 경기 보기

펜웨이 파크 (Fenway Park)에 가보지 않고서는 보스톤을 완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0분짜리 경기장 투어가 매일 진행되니 이에 참여해도 되고, 외야 관람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 또한 색다른 경험이다.

4 Yawkey Way, Boston, MA

8. 샘 아담스 맥주 양조장 투어하기

샘 아담스 (Sam Adams) 양조장에서는 맥주 제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진행되는 양조장 투어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Germania Street, Boston, MA
617-368-5080

9. 프리덤 트레일 따라 걷기

보스톤 커먼에서 시작해 벙커 힐 모뉴먼트 (Bunker Hill Monument)까지 이어지는 2.5마일가량의 산책로인 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을 따라 걷다 보면 미국 역사에 중요한 현장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폴 리버 (Paul Revere)의 집이나 올드 노스 교회 (Old North Church)가 그 예이다. 두어시간 이 짧은 벽돌길을 걷다보면 미국 역사의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 매퍼리움 구경하기

메리 베이커 에디 도서관 (Mary Baker Eddy Library)에 있는 매퍼리움 (Mapparium)에는 3층 높이의 스테인드글라스 지구본이 있다. 이 지구본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음향효과가 더해져 더욱 흥미롭다. 또, 도서관에서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매퍼리움 관련 각종 자료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200 Massachusetts Ave, Boston, MA
617-450-7000

11. 마라톤에 참여하기

보스톤 마라톤을 뛰기가 부담스럽다면 친구들과 함께 나가 마라토너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경험일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8면에 이어서

12. 공공도서관 이용하기

그냥 도서관이 아니다.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윗 층에는 존 싱어 서전트 (John Singer Sargent)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여름에는 도서관 뜰에서 격주로 콘서트를 한다.

700 Boylston Street, Boston, MA
617-536-5400

13. 애나스 타케리아에서 큐비오 해치우기

멕시코 식당인 애나스 타케리아 (Anna's Taqueria)에서 메뉴에는 없지만 한 번쯤 시켜먹어 볼만한 음식이 있다. 바로 큐비오(Cubio)라 불리는 길이 30 인치, 무게 4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부리토이다. 메뉴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하여야 한다.

236 Elm Street, Somerville, MA
617-666-3900

14. 가드너 미술관 구경하기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Isabella Stewart Gardner)는 일생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며 미술품을 수집했다. 가드너 미술관 (Gardner Museum)에는 그녀가 모은 훌륭한 미술 작품들 뿐만 아니라 거닐기 좋은 아름다운 정원도 있다.

25 Evans Way, Boston, MA
617-566-1401

15. 맛있는 보스톤크림파이 찾기

매사추세츠주의 공식 디저트인 보스톤크림파이는 옴니 파커 하우스 호텔 레스토랑 (Omni Parker House Hotel restaurant)에서 1856년에 최초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옴니 파커 하우스에서 원조를 맛 보고 다른 제과점이나 식당에서 만드는 보스톤크림파이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School Street, Boston, MA

617-227-8600

16. 올스톤의 크리스마스

매년 9월 1일을 전후로 보스톤의 학생들이 대거 이사를 한다. 새 집으로 옮겨가면서 학생들이 버리고 가는 각종 물건들이 올스톤(Allston) 도로변에 쌓이게 되는데, 의류부터 시작해서 TV, 오디오까지 종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17. 조정 경기 관람하기

매년 10월 찰스강에서 한 주말 내내 열리는 조정경기 (Head of the Charles Regatta)에는 강의 멋진 가을 풍경에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응원 온 다양한 사람들까지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다.

18. 마음껏 과자 놀이하기

보스톤에서만 과자들이 행복할 곳이 또 있을까. 주로 며칠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는 협동 프로그래밍 이벤트인 해커톤 (hackathon)에 원하는만큼 참여하거나, 혁신과 창의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스톤시에서 만든 디스트릭트 홀 (District Hall)을 찾거나,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수업을 듣고, 비영리 즉석연기 극장인 임프로브보스톤(ImprovBoston)의 과자스러운 코메디의 밤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나잇 무브스 카페 (Knight Moves Cafe)에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

District Hall Boston: 75 Northern Ave, Boston, MA
617-982-3213

MIT: 77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ImprovBoston: 40 Prospect Street, Cambridge, MA
617-576-1253

Knight Moves Cafe: 1402 Beacon Street, Brookline, MA

617-487-5259

esbaik@bostonkorea.com

사진으로 보는 사자 춤 축제



사자탈을 쓴 공연자들이 중국 가게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우리의 합집을 보는 듯 하다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중국인 여성이 사자탈을 쓴 공연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의 정문에는 가자각색의 공연과 함께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꼈다



가게로 입장한 사자들은 양배추를 들고 오렌지를 던지며 액운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만, 다이어트,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 ④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골관절염,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 ⑦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스트레스
- ⑧ 임신, 분만,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치료
- ⑨ 기타 서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다양한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8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T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매사추세츠 주, 컴퓨터 전공 인력 모집 전쟁 중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대졸 초봉은 9만불에서 시작한다.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약 20여통의 이직권유 전화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전화는 자신의 회사로 옮기라는 권유다.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 20-25%의 연봉이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스톤글로브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력난은 매사추세츠 기업들의 첫번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의 테크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올 정도다. 첨단테크놀로지 업체들은 최근의 컴퓨터 전문직 구인난이 과거 닷컴 붐시대보다 훨씬 심각하며 이로 인해 첨단업체들의 확장 신규기술개발 및 성장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첨단테크위원회가 발표한 인덱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매릴랜드와 버지니아와 함께 미국내에서 첨단 전문직 인력을 구하기 가장 어려운 주로 꼽혔다. 이 지수는 우스터 폴리테크닉 대학, 뉴욕소재 연구회사 원티드 어널리틱스 그리고 몬스터 닷컴이 공동으로 직업모집공고와 지역 실업률 등을 바탕으로 만든 지수다.

니덱 소재 여행전문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TripAdvisor Inc)', 케임브리지 디지털 마케팅 회사 '허브스팟(HubSpot Inc.)', 베드포드 소재 로봇업체 '아이로봇(iRobot Corp)'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규회사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수십 명의 직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지역 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실리콜 벨리, 뉴욕 그리고 신규 테크놀로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콜로라도 등과의 인력스카우트 경쟁도 벌어야 한다.

인력 경쟁이 심하다 보니 주요 테크 회사들은 성공적인 인력을 추천하는 직원들에게 1만불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허브스팟의 경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에게 30,000불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아이로봇은 대졸 초봉으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65,000에서 \$80,000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급 또는 상급의 인력에게는 \$130,000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로봇의 인사부에 따르면 25년만에 가장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다.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곳은 사이버보안업체다. 사이버 공격이 점차 증대해지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2014년 사이

버 공격은 48%나 증가했으며 앞으로 도 전화기를 비롯해 자동차 등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업체 인텔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전역의 인터넷 연결 장치의 수는 2천 2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사이버 범죄의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링턴 소재 사이버 시큐리티회사 '아버 네트워크 인크'의 맷 모이나한 회장은 경력직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102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봉은 \$200,000에 달한다. 아버사는 현재 49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88명의 직원을 추가로 모집했다. 그러나 만약 인력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50여명을 더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력구하기 전쟁은 켄달스퀘어, 포트 포인트, 다운타운 보스턴, 시포트 디트릭트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의 테크놀로지 벨트라 불리는 128, 495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신규 기업들과 성장중인 중견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테크놀로지 회사인 SAP, ORACLE 등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지나 정(Gina Chung) 사원이
한인 및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 No minimum balance
No maintenance fee

무료 비즈니스 계좌

모바일 뱅킹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물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East Boston
Savings Bank**

18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800.857.3272 | 857.524.1673
email: cchung@ebsb.com
Kakao talk: haimhaelle



Member FDIC, Member NCUA

보스톤 경찰 택시 운전자 지문 채취 시작

택시 운전자 범죄 기록 조회 목적
우버, 리프트 규제 법안은 논의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서가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지문 채취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하였다. 지문을 통해 연방 기록과 대조하여 범죄 기록이 있는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이다.

운전사에 대한 지문 채취는 택시가 아닌 우버, 리프트 같은 유사 택시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지문 채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사의 운전자들

이 독립 업체로부터 이미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문 채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는 운전사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게 되면 잠재적인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포된 적은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의 속내는 운전자들에 대한 지문 채취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경우 새로운 운전자들을 수급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버는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윌리엄 에반스 보스톤 경찰서장은 택시 기사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보스톤 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때, 항상 운전사를 믿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의회에서 유사 택시 업체의 기사에 대한 지문 채취 여부가 논의되자 우버와 리프트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한 다른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범죄 기록 조회는 의무화 하되, 지문 채취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범죄 이력 조회를 위해 보스톤 택시 운전사에 대한 지문 채취가 시작된다



아마존닷컴이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주문 금액을 49달러로 인상했다

아마존 무료 배송 최소 금액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이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했다. 연 99달러를 내면 가입할 수 있는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상 조치다.

유료 회원이 아닐 경우 기존에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 금액은 35달러였다. 그러나 지금은 49달러 이상을 주문해야 배송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유료 회원은 주문 금액에 상관 없이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유료 회원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유료 회원에 한해 1시간 배송을 하기도

하고, 유료 회원에게는 무료로 이북과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유료 회원을 늘리기 위해 유료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한 액수를 회수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일부 조급한 투자자들은 아마존이 유료 회원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라도 수익을 늘릴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아마존이 유료 회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자 주식 시장에서는 곧바로 화답이 왔다.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하자 아마존의 주식은 4% 상승했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Real Estate**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대표입사자,
1997년에 보스톤 리얼티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
을 마치고 1998년 BOSTON - CAMBRIDGE 지역으로 귀향
한 후 각 지역마다의 특징,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기존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3차원적 접근과 시장과 매물을 도어
드리븐을 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5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9
Tel: (617) 559-4995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erengrim

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적기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저자금이 낮은 편이며 집 값은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realtor.com에서는 올해(2016년) 보스톤 지역의 집 값이 약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와 기존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3.56%(30년 fixed)로 2015년 4월경 이후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낮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해서 렌트비로 나가는 돈을 월자금으로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점점 회복이 감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8년 이상 보스톤에 거주 분들의 집 구입을 권유합니다. 보스톤과 가까운 지역은 타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트리로 방2 +화2 1500 SF의 렌트비는 최소 \$ 2,400 이상을 요구하며 한국 좋은 곳들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은 3,000불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400,000 달러
다운페이 \$100,000 달러
월자금 \$900,000 달러
월자금 4.5% (현재 기준) HOA(콘도 관리비) 매달 \$300, Home Insurance : 800\$/yr
세금등을 합하여 계산하면, 월금 매이먼트가 약 \$2287를 내줍니다.

\$100,000불의 다운페이로 40년분 정도의 콘도나 타운하우스 구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도, 매달 렌트로 매이먼트를 내야하고, 월금을 받아 생활하는 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기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월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현금으로 남아가는 비용을 저축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월자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여유로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소유자나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를 통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또한 많은 교환이나 부담없이 부동산 구입을 해야 할 적기입니다. 월별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렌트비로 나가는 돈 보다는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매상과 달리 모기지물도 현재는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고 (18.6% 까지) 금리를 때도 집 가격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모기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스톤 중심 지역의 콘도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매달 내오는 값 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원하시면 뉴스타 부동산의 GINA CHOI 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연방대법관 지명은 의무...몇주내 이행"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 자리가 빈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은 자신의 의무이며, "몇 주 안에"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연방대법원 블로그 기고문을 통해 "연방대법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심근경색으로 숨지면서 9명으로 구성되는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겼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다음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미치 매킨(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원도 (후임 인준을) 동의하거나 보류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이번 경우 상원은 보류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

명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블로그 기고문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 검토가 "의무"라고 지적한 뒤 상원이 "최대한 빨리 후보 인준을 진행해 법원이 지장 없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한 (업무)기록,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는 대법관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합한 사람(후보자)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smile@yna.co.kr



미치 매킨(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

미 공화 "후임 대법관 인준절차 거부"...오바마와 '정면충돌'

매킨 "상원은 인준 보류", 상원 법사위도 "레임덕 대통령이 지명해선 안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3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원 1인자인 미치 매킨(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원도 (후임 인준을) 동의하거나 보류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이번 경우 상원은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위원들도 이날 회동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를 책임진 상원 수뇌부와 해당 상임위가 이처럼 '인준 거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에 따라 공석이 된 후임 임명절차에 착수한 버락 오바마 대

통령과 정면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 공화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레임덕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뽑아) 후임 지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매킨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선정 움직임에 '별뿔처럼' 들고 일어난 것은 그가 '진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일거에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수의 거두'로 불린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전에는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킨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반대하는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았다"며 "공화당 수뇌부가 하려는 것은 연기, 연기, 연기"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1992년 6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공석이 된 대법관을 지명하려 하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한 것을 공화당이 문제삼았다.

그러자 바이든 부통령은 성명을 내 공화당이 "상원과 백악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터뷰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골라 취지를 곡해했다며 반발했다. shin@yna.co.kr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저커버그 "애플에 공감"... 빌게이츠 "FBI에 협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고미혜 기자 =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공방을 두고 두 실리콘밸리 거물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강연에서 "팀 쿡 애플 CEO와 애플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이 보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식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테러를 비롯한 공격을 예방하도록 도울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협조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수사를 위해 FBI에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도우라고 명령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된 이후 저커버그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애플에 대한 법원의 요구가 "무서운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애플 지지성명을 발표했었다.

애플과 정보기술기업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테러범의 아이폰 1대에만 해당하는 일회적인 조치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한 차례라고 해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IT업계의 선배 거물인 마이크 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저커버그와 반대로 FBI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게이츠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례"라며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주장은 다른 많은 IT업계 기업인들과 거리가 있고 MS의 공식 입장과도 다르다.

이와 관련해 사티야 나델라 MS CEO는 견해를 밝힌 적이 없으나, MS 대변인은 FBI에 협조하라는 법원 명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상당수는 애플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자 보

안업체 버트루 대표인 윌 애컬리는 "(애플이 FBI에 협조해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부나 외부인이 단 한 차례라도 사용하면 애플의 보안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힌트를 얻게 되고, 앞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를 테러범 아이폰의 임시 메모리에 장착해 전원을 끄면 곧바로 삭제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소프트웨어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보안기업 리질리언트 시스템의 브루스 슈나이더는 AP에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쉽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과학수사 전문가인 조너선 즈지아스키는 "수사당국이 아이폰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하면 애플이 법원에 출석해 그 소프트웨어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고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나 전문가들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mihye@yna.co.kr



미국인 51% "총기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인 절반 이상이 애플사가 총기 테러범이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8~23일 미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애플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반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국가 안보 vs 프라이버시 보호'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FBI는 법원 영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 사에드 파록(28)이 사용하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달라고 애플 측에 요청했으나,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또 당파별로도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55%가 "애플사가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당파 층에서는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응답이 45%, "잠금장치 해제 반대"이 응답이 42%로 백중세를 보였다.

연령별 반응도 엇비슷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54%, 18~29세 청년층의 47%가 각각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퓨리서치는 전했다.

jongwoo@yna.co.kr

신입회원및 학생회원의참가를 환영합니다.

보스턴 중앙대 동문회 제20차 정기총회



일시: 2016년 3월13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35
문의처: 회장 이기환 (781.572.8044)

동문들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져 동문님과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제 20차 정기총회를 가지고져 합니다. 부디 참석 하셔서 청룡 중앙인의 사랑과 화목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명수대 언덕 추억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보스톤중앙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STON 중앙대학교 동문회원 (순서없음)

김정숙(경제54), 한윤영(심리55), 이경빈(신방59), 이진주(화학60), 김섭 (사사62), 이상현(경영62), 윤정우(약학62)

김재숙(화학64), 김유상(국문64), 박성규(심리64), 이기환(광산공65), 김희순(체육69), 강천성(기계70), 장승훈(건축70)

김옥식(심리77), 김세형(화공77), 이시원(약학83), 김아람(사진87), 유경렬(철학88), 이재석(토목89), 최에스더(행정대학원90)

조재석(디자인91), 강윤주(조소91), 김배규(피아노96), 이여름(무용97), 유혜경(음악대학원98), 신영각(신문대학원)

테러방지법 극한대치 사흘째...대안 협상 출구 될까

야 필리버스터에 여 본회의장 피켓시위 맞불 격화
야 '정보위 상설화' 협상 촉구...선거구획정이 부담

(서울=뉴스1) 박태정, 이정우, 박승주 기자 = 테러방지법 본회의의 처리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5일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테러방지법 대치 정국은 출구를 못찾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여당은 피켓시위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둔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을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수정안이 제출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완고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원내지도부의 물밑 협상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으로 출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테러방지법 저지와 처리를 위해 각자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날 오전 9시2분부터 7번째 주자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3시간 넘게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입구로 텐더홀에서 1인 피켓 시위로 맞붙을

놓으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시간 현재 '국회 마비 00시간째'라는 피켓과 함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윤조 의원이 본회의장 한켠에 자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총선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의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평가절하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4년 내내 민생과 경제 발목을 잡은 야당이 그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발목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정신나간 무제한 토론", "야권용 선거운동장" 등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서도 여당에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확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26일 선거법 본회의의 처리 압박이 부담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의 테러방지법, 특히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당의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2013년 당

론으로 검토된 뒤 여야 대표가 서명했던 국회 정보위 상설화, 전임화의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제시한 중재안과 같은 내용으로 새누리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보위 상설화는 국정원의 효과적 통제 방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통제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또한 "국정원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하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며 협상에 무게를 뒀다.

ptj@news1.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좌측),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우측)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hn Bae (배 경은)



617-981-1542

Ung Joo (우 조희)



508-641-8924



WELLESLEY

...\$ 1,249,000



NEEDHAM

...\$ 739,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BURLINGTON WEEKLY SALE FEB. 26TH - MAR. 3RD, 2016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A TOAST TO PORK BELLY ROAST WITH KIMCHI—WINE SAUCE.
 Easy to make. Delicious to taste.
 H마트와 함께하는 3월 3일 삼겹살데이! 와인의 풍미와 김치의 깊은 맛을 더한 김치와인소스 삼겹살로 특별한 저녁 식탁을 준비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box **\$24.99**

Kabocha 단호박
 lb. **\$0.99**

JINGA Tofu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0.99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 **\$1.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lb. **\$1.4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lb. **\$9.99**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돼지목살
 lb. **\$4.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lb. **\$5.99**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lb. **\$2.4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별집 삼겹살
 lb. **\$5.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 TONGBAY Dried Jiri Anchovy 통통배 지리 멸치
 16oz./pkg. **\$16.99**

Head-on Wild Jumbo White Shrimp for BBQ 자연산 소금구이용 흰 양새우
 9-12's lb. **\$9.99**

TONG TONGBAY Izumi-Dai Tilapia Fillet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7-9oz./pkg. lb. **\$3.99**

Salted Yellow Croaker 자반 참굴비
 lb. **\$5.99**

Squid 냉동 오징어
 lb. **\$1.99**

Pollock 서부산 생태
 lb. **\$2.99**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9.99**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9.99**

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상큼하고 맛있는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CHORIP 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조림동이 순생선살 종합어묵
 1.1 lbs. **\$2.99**

NONGSHIM Zha Wang Noodle with Roasted Jjajang Sauce
 47oz. x 4ea./pkg. **\$7.99**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Original/Parae - 0.15oz. x 8ea./pkg. **\$2.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CJ Bibigo Classic Dumpling/Crispy Potstickers CJ 비비고 물만두/군만두
 1.75 - 2 lbs. **\$7.99**

SPAM HORMEL FOODS Spam All Varieties/12oz.
 cans/for **2\$5**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oz. **\$9.99**

KTOWN Cooked Seasoned Loach Soup 케이타운 남원 전통 주어탕
 15.8oz. **\$4.99**

OSAKI BRAND Fish Cake 오자끼 게맛살
 1.1 lbs. **\$5.99**

HAI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70mL x 8bars/box **\$3.99**

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4.99**

GLICO Pocky Biscuit Sticks 10cnt/Chocolate - 4.47oz./Strawberry - 4.19oz./pkg.
\$2.99

광동 쌍화탕 KWANGDONG Herbal Tonic Drink
 3.3fl.oz. x 10btlis/box **\$4.99**

호피무늬 겨울 실내화 Micorofiber Leopard Indoor Slippers
 All Colors/Pair **\$3.99**

헬로홈 밍크 담요 HELLO HOME Lana Blanket
 Rose/Animal Patten - ea. **\$29.99**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 Warmer
 NL-AAC18CA/10Cups - ea. **\$169.99**

TASTE THE NORWEGIAN DIFFERENCE
 노르웨이 청정해역에서 자란 연어와 고등어를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FEB. 26 - FEB. 28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필리버스터 40시간 돌파...왜 야당 필리버스터 하고 있나?

선거법이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 변수...늦으면 10일 이후에나 처리 판가름

야 규정 독소조항 개정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테러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돌입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5일로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입법화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테러방지법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된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감행해 새누리당에 힘을 실었지만 정부 여당이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이 47년만에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데는 이 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여전하고 그 상정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방지법 제2조 2를 살펴보면 테러위험인물을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

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즉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에 대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비약이 있긴 하지만 국정원이 마음을 먹으면 전국민의 영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정원은 통신감청의 경우 영장을 통해 추적권을 갖는다. 사실상 미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기획·조정 업무만 맡는다는 점도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협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 등의 권한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이 같이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의 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국회 정보위로도 견제가 쉽지 않은 국정원을 인권보호관 1명이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나 중정처럼 탈법의 중심에 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전력이 있어 신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동력이 떨어져 가

면서도 필리버스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3월 임시회가 소집된다면 첫 번째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10일까지 이어진다면 테러방지법은 다음달 10일 이후 처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가 26일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안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야당이 26일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여야가 중재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거나 멈추는 등의 논의가 여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5일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 "정신나간야, 국민 목숨 볼모로 선거운동" 비난

(서울=뉴스1)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총선 선거운동"이라고 규정, 25일부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모두 나서는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에서부터 의원들까지 순번을 정해 피켓을 들고 서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의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래 버티기 신기록 경신 대회로 이름을 알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고 있으니 이들의 선거운동은 성공한 듯 하다"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평가절하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은 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 야당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 운동을 벌여지고 있다"며 "국민

뜻과 정 반대로 북한의 편을 들고 우리 정부만 공격하더니, 테러방지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더민주가 대한민국 정당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2009년 미국 9·11 테러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상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더민주, 두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을 앞장서 처리해도 모자르는데 사상 초유의 입법 방해를 하고 있으니 씁쓸하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4년 내내 민생과 경제 발목을 잡은 야당이 그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발목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세력에게 과연 우리 미래를 맡기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자기들 정권 10년 때도 국가정보원에게 국가 안보 관련 일을 시켰던 야당이 지금 행하는 필리버스터는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냉소하고,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

해야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정신나간 무제한 토론", "야권용 선거운동장" 등이라고 맹비난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의제에 벗어난 토론을 방지해서는 안된다. 국회법 위반 발언자는 즉각 퇴장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피켓 시위 후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 등과 함께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이 도가 지나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금 발언하는 의원들의 이력을 살펴봐라. 국가보안법 위반, 좌파 시민단체 출신 등 강경 진보좌파"라고 공세를 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현 테러방지법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eriwhat@news1.kr

필리버스터 은수미, 10시간15분 최장 기록도 깨...눈물 흘려

10시간18분간 발언...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 기록 경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장 발언기록을 경신했다.

24일 오전 2시30분께부터 본회의 단상에 올라 발언을 시작한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48분까지 발언을 해 10시간18분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의 '5시간 32분' 발언 기록을 넘어선 은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인 10시간 15분도 경신했다.

국내 최장 기록은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15분 동안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이같은 분투에도 3선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언이 길어지면서 은 의원도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은 의원은 발언 중간중간마다 허리가 불편한지 손으로 주무르기도 하고 발목 관절을 푸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모습에 야당 의원들은 은 의원을 걱정해 추가 발언을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체력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하겠다"며 발언을 그대로 이어갔다. 은 의원은 토론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정

부 여당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중간에는 여당 의원들과 고성도 주고 받았다.

은 의원은 발언 도중 테러방지법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은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고 소리쳤다.

김 의원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있지, 그러다고 공천 못받는 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은 의원도 맞받았다.

은 의원은 "삿대질을 하시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하신 거냐"며 "저는 공천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다.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을 들어낸다면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여당과의 협상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sanghwi@news1.kr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 참지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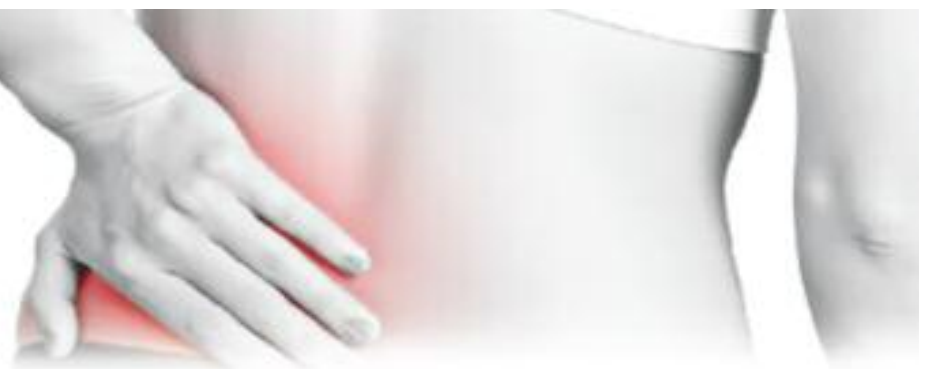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윤창
Dr. 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틀리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네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턴 노스어스턴 물리치료학 박사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특급보형〉
학성보형, 여형자보형,
개안보형 PPO, 상해보형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살짝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ocn, etc.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박 대통령 취임 후 3년, '잘했다' 47% < '잘못했다' 50%

머니투데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남은 2년 '잘할 것' 53%
6개 부문평가 중 외교안보 '최고' 국민통합 '최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47.3%가 "잘했다", 49.8%가 "잘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박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느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8.5%가 "잘한 편", 18.8%가 "매우 잘했음"이라고 답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49.8%로 근소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앞섰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 지난 3년간 분야별 국정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외교안보로 응답자의 54.8%가 "잘했다" 42.0%는 "잘 못했다"고 답해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외교안보 △국민통합 △국민안전 △미래비전 등 6개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가장 부정평가 비율이 높은 항목은 국민통합으로 "잘했다"가 39.6%, "잘 못했다"는 55.3%로 조사됐다. 남은 임기 2년 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

이 53.0%로 "잘 못할 것"(42.7%) 답변을 앞섰다. 또한 '앞으로 2년 동안 박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활성화'(31.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주화'(19.0%)와 '국민통합'(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4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경제 △외교 · 안보 △국민통합 △국민안전 △미래비전 등 5개 분야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 5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

통령의 지난 3년 간 국정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6.7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에 대한 점수가 6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교 · 안

보'가 58.9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제활성화'(52.9점), '미래비전'(48.8점), '국민통합'(44.4%), '경제민주화'(39.1%) 순이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 '긴축→부양→리스크관리' 경제정책 오락가락... "구조개혁, 차근차근 추진해야"

'2.9%→3.3%→2.6%' (경제성장률)
'1019조원→1085조원→1207조원' (가계부채)
'64.4%→65.3%→65.7%'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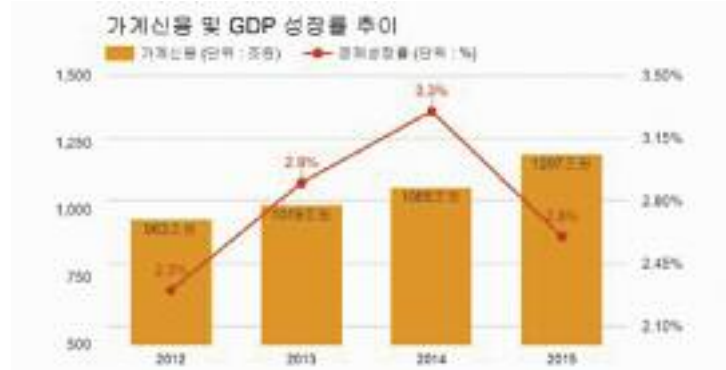
(세종=조선비즈) 정원석, 이윤정 기자 = 경제지표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의 경제성적표다.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섯 번 내리고, 추가경정예산을 두 차례나 편성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3%로 올라서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는 정부 출범 3년 간 200조원 가량 폭증했다. 추경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빚(중앙정부채무)은 2012년 말 425조원에서 지난해 말 595조원으로 급증했다.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70%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상용직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성과로 분류된다. ◆ '긴축'으로 시작했으나 '부양'으로 귀결된 거시정책 박근혜 정부는 당초 경기부양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19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12조원은 경기부진으로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한 용도였고, 경기부양성 지출은 7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또한 추경 직후인 2013년 5월 한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1년 넘게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이명

박 정부 집권기에 경기부양성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축적인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시 경제팀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박근혜 정부 첫해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면서 달라졌다. 경기회복이 미약해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재정지출 여력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 정책 또한 정부 출범 첫 해까지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 출범이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놓은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섰다.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내수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던 지난해에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소비 촉진책도 실시했다. 여기에 한은도 최 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차례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까지 낮춰 정부의 경기부양을 지원했다. 이런 경기부양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은 8분기만에 처음으로

로 1%(분기비)대로 올라가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단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 폭증 사태 초래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경기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긴축과 부양을 냉온탕 오간 것처럼 원칙 없이 거시정책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진 '재정절벽'을 초래했던 것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는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963조원 수준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207조원으로 폭증했다. 두 차례 추경 예산편성 등으로 중앙정부채무는 2012년 말 425조원에서 지난해 말 595조원으로 급증했다. GDP대비 정부채무비율은 올해 말 4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총장 출신인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창조경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을 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만 잠시 들쭉고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회생에 대한 청사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 '성과내거식 구조개혁은 경제 운용 더 어렵게 할 것'

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 2014년 1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2(안정적)으로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월 중순 출범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의 3기 경제팀 또한 단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와 대외경제 불안 등 경제리스크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구조개혁 논의가 집권 3년차인 지난해에 나온 것은 다소 늦은 감 있지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잘한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리스크 커진 것 등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구조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 강화하고 생산성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조개혁의 성과를 남은 2년간의 임기 중 도출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상 교수는 "남은 임기 2년 안에 실적을 내겠다는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한 장기 플랜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는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벤처의 창업이 많이 이뤄지는 산업구조 개혁이 나타나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경제 여건이 불안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내거식 개혁보다는 정부가 경제안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 과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기대수준을 낮추고 가계부채, 부실기업,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경제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llp@chosunbiz.com



▲ 가계신용 및 경제성장률 추이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용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파 화장실 내 위치)

탈라, 교란지 쥬,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루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컬로언트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지,
피로방, 탄력, 밝
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활력을 주는 효자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 50% 할인
간편결제 가능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정부, '한중관계 파괴' 추귀홍 중 대사 초치

추귀홍 "민감성 이해...한중관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해명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중관계 파괴' 등을 언급한 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차관보는 이날 오후 추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추대사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추대사는 이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실제 언급한 내용, 보도된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해명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의 민감성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주한중국대사로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추대사는 전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나 "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중)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추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정도를 벗어난 행태로 비쳐지면서 파장을 낳았다.

jung9079@news1.kr



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귀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얘기 나누는 김종인 대표와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야 찾아온 추귀홍 "사드, 순식간에 한중관계 파괴" 경고

김종인 "사드로 양국관계 훼손 원치 않지만 중, 북한 설득 더 노력해야"

추 "중은 물론 결국 한 안보도 위기...사드 아니었다면 벌써 새 대북 결의안 채택"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가 23일 '한반도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양국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회 더민주 대표실에서 45분여간 면담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면담은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사는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중)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추대사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내세워 한국과의 분리 대응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 정부가 레이더 탐지거리를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중국은 좋은 친구로서 한국 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조정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

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대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중국의 안보위기'를 첫 번째로 든 뒤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둘째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한국에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한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시점에 사드배치를 협상하고 가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분산시키는 셈"이라며 "이는 안보리 협상과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사드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문제와 자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추대사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중 양국간 제재 수위의 의견 차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의사소통을 통해 그 차이는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

이번주 안에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는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제재는 목적이 돼선 안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추대사의 주장을 들은 뒤 "양국정부 간 입장 차가 있는데 중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있겠는지, 또 안보 측면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대한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간 쏘아올린 우호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이 유엔의 제재결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도를 하지 않도록 6자회담의 복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대사는 이에 대해 "김 대표가 중국 측이 노력해달란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cho11757@news1.kr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약정체결 돌연 연기...왜?

미중 워싱턴 대북제재 담판 일정 고려

중국 자극 피하려 톤 조절 나선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권혜정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에 대한 약정체결이 23일 발표 1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한미가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약정체결 예정일이 예고된 상황에서 급하게 연기하게 된 다른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한미 간 약정체결이 하루이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미 간 약정체결을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를 불과 한시간 앞둔 상황에서 돌연 약정체결이 연기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약정체결을 미룰 수 밖에 없는 모종의 배경이 있을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당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최종적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돌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를 앞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첫번째 절차로 여겨지는 한미 간 약정체결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과의 유연한 논의를 위해 일단 한 템포 늦춰보자는 미국의 요청이 전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하루 이틀' 연기된다고 밝힌 것 역시 다분히 왕이 부장과 케리 장관 간 접촉 일정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안보리 제재안을 두고 미중 간 담판 성격의 접촉이 갑자기 잡히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 진전된 입장을 들고 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미국에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본격화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이 대북제재와 관련 모종의 '선물'을 들고올 경우도 염두에 두고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사드 논의를 잠시 보류했다는 뜻이다.

다만 중국측이 대북제재와 관련 다소간 진전된 태도를 보이더라도 한미 간 사드배치 논의의 큰 물줄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관련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약정이 체결되면 내주 안으로는 공동실무단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

소비자심리 3개월 연속 하락 메르스 사태 수준 추락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수출 부진 지속과 북한발 리스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석달 연속 내림세로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이다. CCSI는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6월 98까지 떨어진 뒤 10월까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반대의 경우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된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를 보면 가계수입전망(-0.8p)과 소비지출전망(0.7p)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각각 90, 9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98, 105로 2p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65, 75로 3p씩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1p 상승한 78, 금리수준전망CSI는 16p 하락한 102로 나타났다.

현재가계저축CSI는 87로 1p 하락했고 가계저축전망CSI는 93으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32로 전월대비 3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과 동일했고 임금수준전망CSI는 112로 전월대비 2p 하락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4%, 2.5%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은 공공요금(60.9%), 집세(46.1%), 공업제품(28%) 순으로 조사됐다.

jbk8801@news1.kr

3월 분유재고 사상최대 예고 정부 "어떻게 손써볼 방법 없다"

원유소비 흰우유에서 치즈로 전환...가공시설 지원없어 치즈 수입 증가 부추겨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오는 3월 분유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5일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분유 재고량은 1만 9995톤으로 전년(1만 8484톤) 대비 8.2% 많다. 이같은 추세로 본다면 분유 재고량 2만 2300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월보다 오는 3월 재고량이 더 많을 전망이다.

방학 등으로 우유 급식이 중단된 여파가 있는데다 날이 풀리면서 우유 생산량은 늘어나 3월엔 계절적으로 분유 재고량이 치솟는다.

낙농계가 원유 생산을 감축해 지난 1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줄었지만 소비 감소폭은 더 커 분유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8%가량 더 많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분유 재고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지 않으려면 원유 생산량을 전년대비 2% 더 감축해야 한다"면서 "감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낙농계가 원유와

잉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증산에 나설까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농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증산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 원유 감축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원유 기본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원유 생산이 이뤄지도록 원유가격연동제를 손본다고 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발전협의회에서 원유 수급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계와 유업계가 많은 진통을 겪은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손을 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3월 우유대란이 예상되지만 소비 진작책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전부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원유소비활성화사업 100

억원은 치즈를 만드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흰우유 소비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다.

이마저도 지원받는 곳은 큰 규모의 가공장 3곳과 목장형 유가공 같은 소규모 3곳 등 6곳에 불과하다.

원유 소비가 흰우유에서 치즈 등 가공유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공동 가공시설을 설치해주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구상단계에 머물러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북낙농협처럼 지역 농협 단에서 공동 치즈가공시설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동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시가상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치즈 원료 국산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지난해 치즈 수입량은 11만톤을 넘어섰다. 국내 치즈 소비량의 95%가 수입산 치즈다.

lej@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들 모르는 분,
서울설렁탕의 비밀,
국물,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617.505.6771
Facebook: SeoulSeolnongtang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617.573.8888
Facebook: SeoulFoodMarketBar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미와 과녁의 손잡이, 머리끝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자일 130불 부터/개국일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리장 김영남 미용실, 못헤오빌 머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팀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성 양뚜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절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k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전이다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 영대성경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ent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Owner of FRI
www.cananrealty.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101 King St. Boston, MA 02108
www.bostonfirstchurch.com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NY State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회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08 Tel: (617) 695-0235, (617) 69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S Go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리칭 프로
sj.usgtr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이에 바로 안에 머무는 삶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헌신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진실, 온전, 진리, 사랑, 온전, 부활을 영접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0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회
유복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주 법인을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 UP SOLUTION은 POS 시스템, 고객결제 시스템 등
점포에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고객의 결제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 시스템지사 겸사원 **이선호**
781.266.7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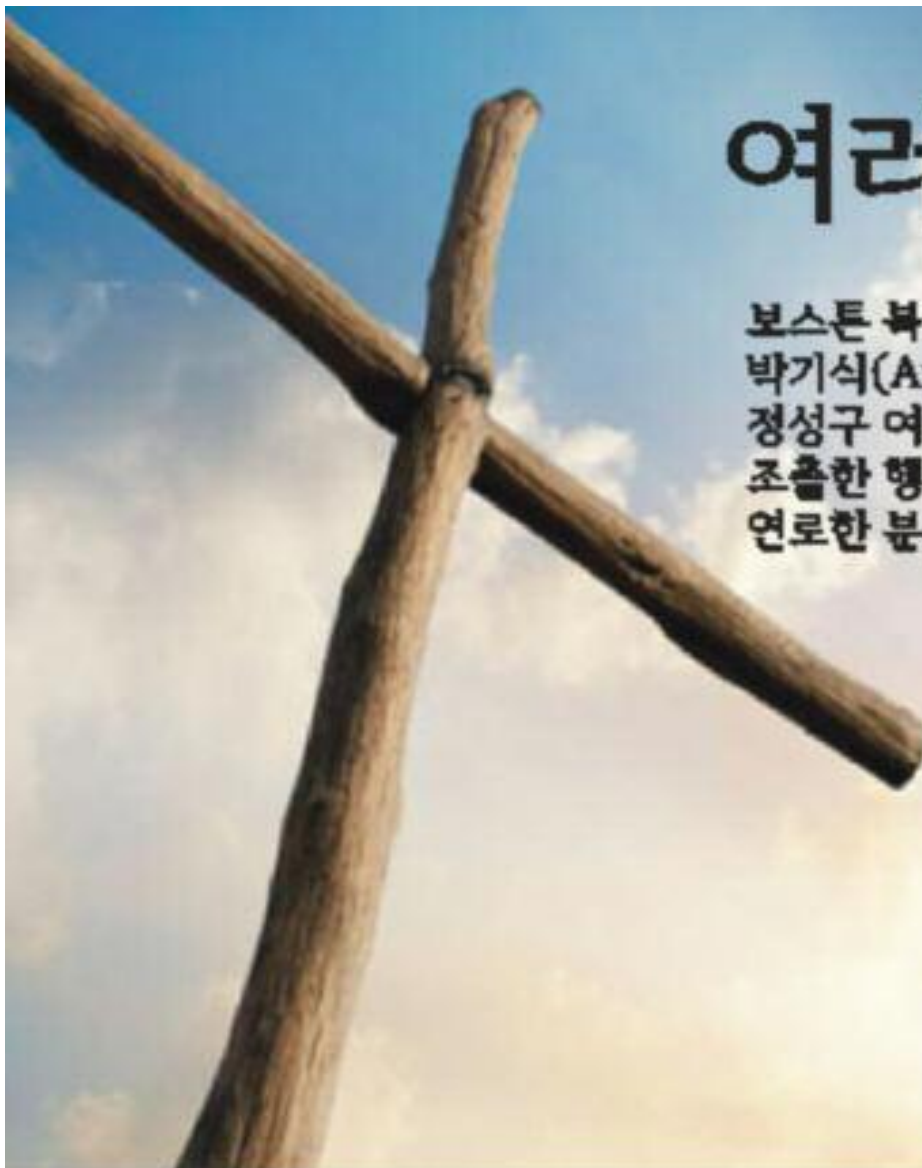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에 National Grid와 Ameren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급단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내용물
www.xoomenergy.com에
해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이선호 지사관 / energy@slp-xoom.com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북부지방에 정착한지 44년이 되는 박기식(Andrew Park)옹의 미수(米壽)와 정성구 여사와의 혼인 회년(60주년)에 즈음하여 조촐한 행사와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분을 모십니다. 연로한 분들의 참석을 반깁니다.

신앙과 평화문제
강사: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 전 재미 기독교학자회장)

민족문제와 성경의 분부
강사:함성국 목사
(60년대 브루클라인 한인교회, 70년대 해성론 감리교회 목사, 전 연세대 신학대학원장)

강연후 음악 공연 및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시: 2016년 3월 6일 오후 5시-7시30분

장소: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244 Lowell St, Andover, MA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BOSTON-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파보나 변호사 Yael We 변호사 박계영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시민권 신청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패트리어츠의 2016년 드래프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년 NFL 드래프트까지는 아직 두 달여가 남아 있지만 각 팀의 프런트들은 쓸만한 재목을 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역시 NFL 컴바인 데이터를 통해 쓸만한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다.

다른 팀과 달리 올해 패트리어츠의 고민은 깊다. 드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라운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디플릿게이트 소송에서 쿼터백 탐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치 처분은 사라졌지만, 패트리어츠 팀에게 내려진 처벌인 201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 박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확한 물증도 없이 모호하게 내려진 결론에 의해 내려진 처벌이지만 패트리어츠는 더 이상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브래디에게 내려진 처벌이 사라진 만큼 패트리어츠에게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작년의 경우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말콤 브라운을 선택했다. 프로 무대에서 바로 기용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브라운은 1라운드 20위권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

지만, 패트리어츠가 운 좋게 1라운드, 전체 순위 32번째로 브라운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브라운 같은 운에 기댈 수가 없다. 패트리어츠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수는 2라운드, 전체 60위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선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오펜시브 태클

빌 벨리치 감독 체제에서 패트리어츠는 첫 3라운드에서 태클을 4번 선택했다. 네이트 솔더(2011년, 1라운드), 세바스찬 볼머(2009년, 2라운드), 닉 카주르(2005년, 3라운드), 그리고 맷 라이트(2001년, 2라운드)가 초반 라운드에 선택됐고, 8명의 태클이 4-7라운드에서 선택됐다.

오펜시브 태클은 현재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NFL 컴바인에는 몇몇 뛰어난 태클 포지션 선수들이 있었지만 패트리어츠가 2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1라운드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제외해야 한다.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신인을 육성할지, 트레이드나 자유 계약 선수를 통해서 베테랑 선수를 영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오



패트리어츠가 작년에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택한 말콤 브라운.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올해 1라운드 선택권이 없다

펜시브 라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016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러닝백

1년 전에 NFL에서는 토드 걸리가 패트리어츠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당시 걸리는 비록 무릎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재능은

확실하게 인정 받고 있던 선수였다. 부상 이력 때문에 초반에 선택되기는 어렵고 패트리어츠에 선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걸리는 10번째에 선택을 받아 램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걸리는 첫 4경기를 결장했지만 지난해 NFL 오펜시브 루키 상을 받았다.

패트리어츠의 주전 러닝백인 르게렛 블런트는 올해 3월이 되면 자유 계

약 선수가 된다. 지난 시즌 초반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받은 디온 루이스가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의외로 러닝백의 선수층이 얇은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을 눈 여겨 봐야 한다.

jsi@bostonkorea.com

[MLB] '코리안 메이저리거' 소속팀의 오프시즌 미 매체 성적표는?

볼티모어-세인트루이스 'B', 미네소타는 C-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 'USA 투데이'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들의 오프시즌 행보를 평가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을 새로 영입한 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USA투데이'는 24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오프시즌을 성적으로 매겨 발표했다. A+가 가장 높고, D가 가장 낮은 점수였다.

김현수를 영입한 볼티모어는 B로 평가됐다. 주전 1루수 크리스 데이비스와의 재계약이 높게 평가됐고, 최근 우완투수 요바니 가야르도와 외야수 텍스터 파울러도 추가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김현수에 대해서도 "KBO리그에서 건너온 그는 좌익수 포지션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오승환의 소속팀 세인트루이스도 B의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 매체는 "존 랙키와 제이슨 헤이워드를 잃었지만, 선발 마이크 리크를 영입했고, 불펜투수 조나단 브룩스틴과

재계약했다. 33세의 한국인 마무리투수 오승환도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병호를 영입한 미네소타는 낮은 점수축인 'C-'를 받았다. 미네소타는 이번 오프시즌에 박병호의 영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매체는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 미겔 사노와 같은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호에 대해서는 "그는 한국에서 지난 2시즌간 52, 53홈런을 각각 때려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그 정도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이대호(34)를 영입한 시애틀 매리너스는 B-로 평가됐다. 하지만 주요 움직임에 이대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추신수(34)의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 역시 B-를 받았고, 류현진(29)의 LA 다저스는 C, 강정호(29)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C-로 평가됐다.

한편 이날 성적표에서 내셔널리그에서는 헤이워드와 벤 조브리스트, 존 랙키, 아담 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승환(34)

렌 등을 대거 영입하며 우승후보로 떠오른 시카고 컵스가 A+를 받았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크레 킴브렐을 잡은 보스턴 레드삭스

와 저스틴 업튼을 영입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각각 A+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starburyny@news1.kr

POS 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NEWSTAR
BOSTON**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940 sf.
완이업데이트 된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음,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경한 주차환경, 좋은 학군
제스리 978-806-0023

콘도 Condo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8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800,000
Lexington, MA
5 beds, 4.5 baths, 3800 sf.
Custom built in 1991
Modern house 5000sf.
OT Kim 617-620-8242



\$519,000
Teversle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7,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9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특사비 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 Baths, 1740 sf.
Shelly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 Baths, 1579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 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Jay Lee 781-654-5281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 sf.
Gina Choi 978-866-324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00년 개업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전국에 걸쳐 활동하며 / 100% 한국 사람 / 한국 문화에 이해함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비즈니스 빈자리	Restaurant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115,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Coin Laundry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995,000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오준 유엔 대사 “북핵” 강연

✓ 3월4일 금요일 6시반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에서는 오준 유엔대사를 초대하여 “북핵”에 관한 주제로 MIT에서 강연을 갖는다. 오준대사는 지난 강연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적이 있으며 이어 그는 “남북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초대강연에서 한반도의 현실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주변국들이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기대된다.

우리의 일입니다!!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강연자: 오준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날짜: 3/4일 (금)

일시: 저녁 6시 30분

장소: MIT

(32 Vassar Street, Cambridge MA (Classroom: 32-155))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구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면허	617-351-4500
펠웨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우회	978-407-7554
국제대한교우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미사주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향기독교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교우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아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곡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뱌엘교회	978-274-2369
엘머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머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트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트 교회	508-799-4488
위십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한인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권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록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정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206-4560
뷰티룸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 헤어다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 헤어다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642-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육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트라치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메디칼(0 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와	617-566-1055
-----------	--------------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아이콘덴탈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미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미분한 보험	781-325-3406
조충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턴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턴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턴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턴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턴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턴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데드햄 네일살롱 테크니션 구함
초보자 환영
T. 312-235-9660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외)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매 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 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도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시와 천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관객 모두가 울었다" 위안부피해 할머니 영화 '귀향'

(서울=뉴스1스타) 정재민 기자, 최은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영화관. 이날 개봉하는 영화 '귀향'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 50여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온 관객들은 입장 전부터 "슬플 것 같다", "꼭 봐야 할 영화"라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온 고모씨(68·여)는 "집 앞에 영화관이 많지만 '귀향'을 상영하는 데가 없어 일부러 개봉일에 맞춰 서울로 왔다"면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가 '귀향'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날 민주당 영입인사 10여명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표 전 교수는 "마음이 아프지만 꼭 봐야 하는 영화"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 강북구의 한 영화관에서도 귀향을 보기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부터 10대 소녀까지 관객 연령의 폭은 넓었다.

이날 남편과 극장을 찾은 김모씨(72·여)는 "우리 '언니'들의 슬픈 이야기를 보기 위해 왔다"면서 "보는 내내 옛 생각이 나 눈물이 물밀듯이 차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식들, 손녀들은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고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방학을 이용해 영화관을 찾은 정모양(16)은 "교과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몇 줄의 설명만 알았다"면서 "하지만 오늘 본 할머니들의 삶은 끔찍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와 비슷한 나이에 타국에서 느꼈을 고통, 외로움 등을 나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객 정모씨(38)는 "나도 울고 주변 관객들도 많이 울어 영화관 안이 마치 장례식장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씨는 얼마 전 있었던 한·일 외교 장관 회담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에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래서 할머니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귀향'은 조정래 감독이 강일출(88)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12억원을 모금 받아 구성 기간을 포함해 10여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조 감독은 지난 4일 열린 언론사사회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같은 전쟁 범죄"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귀향은) 치유의 영화라고 하고 싶다"면서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치유받고 그분들의 마음이 풀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김경순(90)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살아있는 할머니는 44명(국내 40·국외 4)이 됐다.

ddakbom@new1.kr

'데드풀' 전무후무 안티 히어로가 말하는 정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데드풀'의 흥행이 흥미로운 점은 전무후무한 악동 히어로의 선전이라는 점에 있다. 기존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에서 벗어난 악동의 등장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었다. 영화 홍보 문구에서 강조했던 '정의감 제로'라는 캐릭터의 특성과 히어로라는 이상적인 인물은 상충되는 지점이 많았기에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물론 마블 코믹스의 아이언맨, 앤트맨 정도가 대의를 위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데드풀과 비교되곤 한다. 독단적 판단과 추진력, 개인적 이유로 평화를 이루려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데드풀의 신랄하고 직접적인 셸프디스는 영화에 진지한 평가 잣대를 들이댈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맨의 멤버 콜로스와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가 등장하는데 캐스팅 비용 때문에 카메오 출연이 2인 밖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데드풀의 구구절절한 설명은 B급 정서가 충만한 이

흥수저 히어로에 대한 애잔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내 대의를 위해 싸우자는 비장한 콜로스에게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며 비웃는 순간, 상황이 역전돼 관객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이처럼 '데드풀'은 '정의'로 대변되는 기존 히어로 무비의 관습을 전복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내 안의 영웅을 발견해주는 이가 있다면"이라는 데드풀의 고백은 기존의 근사한 슈퍼 히어로가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는 진부한 이야기도 꼬집는다. 그렇게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흥취하게 만들고 여자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도 악과 맞서야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 셈. 거창하게 세계 평화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는, 조금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히어로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aluem_chang@news1.kr



'귀향', 제작 개봉 어려웠지만 흥행 희망 생겼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관객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영화 제작진들을 감격하게 만들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삶을 조명한 영화 '귀향'이 예매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24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개봉하는 영화 '귀향'은 현재 예매점유율 27.2%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데드풀'(13.8%)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12.6%)를 제쳤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다. 제작에 착수한 지 14년

만에 7만5천명이 넘는 국민의 후원과 배우·제작진의 재능기부로 완성될 수 있었다.

투자 배급사를 찾는 문제부터 개봉일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상영관 확보도 당연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귀향'의 상영관을 늘려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지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이 상영에 동참했다. 전국 340개 극장, 50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한다.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강력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진실과 마주한 영화 '귀향'이 흥행마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2월 15일 ~ 2016년 2월 21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3.2%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7.1%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5.6%
4	MBC	주말드라마(엄마)	23.0%
5	SBS	드라마스페셜(리멤버아들의전쟁)	19.2%
6	KBS1	KBS9시뉴스	18.1%
7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5.5%
8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5.1%
9	MBC	무한도전	14.6%
10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4.3%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 승리)
5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6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7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8	SBS	주말드라마(그래, 그런거야)
9	KBS1	대하드라마(장영실)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2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3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ZICO)
04	Rain	태연
05	잊어버리지마 (Feat. 태연)	Crush
06	Dream	수지, 백현
07	OOH-AHH하게	TWICE
08	오늘부터 우리는 (Me Gustas Tu)	여자친구
09	센치해	WINNER
10	니가 하면 로맨스 (Feat. 다비치)	케이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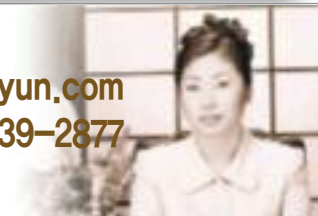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4			8	1		3
	7				9		2	
			3		4		9	5
7					3	8		4
			8		7			
3		8	2					9
2	3		1		5			
	9		4				8	
8		6	9			5		

2월 28일 - 3월 5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운수: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자식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사실대로 말하면 농침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3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미운정 고운정이

●운수: 버리고 버려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정돈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자신이 세워둔 계획이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부딪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애정: 자주 만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9, 4일 길일, 2, 5일 주의.

범띠 | 체계를 세워서

●운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금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체계를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애정: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정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5일 길일, 29, 3일 주의.

토끼띠 | 구름이 검히고 햇살이

●운수: 구름이 검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예상하지도 않았던 소득을 얻게 되겠습니다. 특히 매매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애정: 잘 보이거나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

용띠 | 최선의 결과가

●운수: 주위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맘 흘린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찾아오니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

뱀띠 | 지레짐작하지 말고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 4일 길일, 3, 5일 주의.

말띠 | 이제야 빛을 발하게

●운수: 진흙 속에 묻혀있어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보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해줍니다. 싸게 산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대화의 창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잘 전해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5일 길일, 2, 4일 주의.

양띠 | 좋은 씨앗을 심어야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에 얻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금전: 실리를 따라가야 하나 인간관계를 따라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에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애정: 한쪽은 자꾸 감추려하고 다른 한쪽은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1일 길일, 2, 5일 주의.

원숭이띠 |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

●운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 과거의 일을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4일 길일, 29, 2일 주의.

닭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운수: 누구의 편을 들든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도 저도 아닌 태도는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애정: 결혼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결혼하고 함께 하기에는 이래저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29일 길일, 1, 2일 주의.

개띠 | 뜻밖의 행운이

●운수: 깜깜한 동굴을 가다가 한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잘 어울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3일 길일, 28, 2일 주의.

돼지띠 | 스스로 해결하려고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정: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입장이 곤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5일 길일, 29, 3일 주의.

백지영X치타, 반전 노린 콜라보 '사랑이 온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가수 백지영과 래퍼 치타가 콜라보레이션 싱글을 발표한다.

백지영과 치타는 오는 29일 정오 콜라보 싱글 '사랑이 온다'를 공개한다. 이번 콜라보는 두 걸크러쉬 아이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백지영은 앞서 SNS를 통해 치타가 선물한 팔찌를 자랑하며 "센스 있는 예쁜 후배, 대세는 백지" 등 태그를 올려 돈독한 케미를 자랑했다.

'사랑이 온다'는 백지영과 치타의 센 이미지와 달리 반전을 노린 콘셉트가 포인트다. 달콤한 분위기의 미디엄 팝 댄스 장르의 곡으로, 두 사람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치', 걸스데이의 '보고싶어' 등을 작곡한 여성 프로듀서 세이온(SEION)을 필두로 진행돼 진정한 '여성 파워'로 무장한 여심 저격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은다.



백지영은 기존 허스키한 보컬에서 청순하고 어린 보컬로 변신했고, 치타도 평소의 다이내믹한 래핑과 달리 슌한 랩을 선보이며 사랑을 기다리는 여성의 감성을 표현했다.

ppbn@news1.kr



추성훈-추사랑 부녀, '슈퍼맨' 하차

"안녕! 추블리"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추성훈-추사랑 부녀가 KBS2 주말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 슈퍼맨)에서 하차한다.

KBS 측은 24일 오후 “ ‘슈퍼맨’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추성훈-추사랑 부녀가 본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됐다” 고 밝혔다.

추성훈-추사랑 부녀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 방송은 오는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슈퍼맨’ 측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블리’ 라는 애칭을 붙여

줄 정도로, 추성훈-추사랑 부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제작진 또한 그동안 사랑이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추블리 부녀의 졸업에 아쉬움이 크다” 고 전했다.

이어 “2013년 ‘슈퍼맨’ 파일럿부터 함께 한 가족으로, 강인한 파이터 이면에 있는 ‘팔바보’ 로서의 부드러운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 준 추성훈과 많은 이들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선사한 사랑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며 “또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현명한 엄마 야노 시호계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사랑이가 족을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kun1112@news1.kr

'무한도전' 멤버들, 현대인 힐링 지원 사격...고민 일대일 상담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멤버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속 지우고 싶은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상담 시간을 마련한다.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녹화에서 '나쁜 기억 지우개' 특집을 기획했다. 현대인들이 안고 사는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트라우마 등 지우고 싶은 마음속 나쁜 기억들을 지우고,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기획한 것.

이에 멤버들은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 현대인들의 '힐링 멘토'인 헤민 스님, '인생 교과서'로 불리는 '미생'의 윤태호 작가,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조정민 목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무한도전'은 오는 27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4048 • GDT • LMBB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섯', 유쾌한 가족극 탄생이요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아이가 다섯'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쾌한 가족극의 탄생을 알리며 첫 방송을 마쳤다. 첫방은 개성만점 캐릭터의 향연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20일 저녁 7시55분 방송된 KBS2 새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극본 정현정/연출 김정규) 1회는 이상태(안재욱 분)의 아들 이수(조현도 분)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됐다.

'아이가 다섯'은 싱글맘과 싱글대디, 불륜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커플 뿐만 아니라 결혼을 매개로 가족이 된 이들의 미묘한 심리전도 능숙하게 다뤘다. 이상태를 아들로 둔 이신욱(장용 분)과 오미숙(박혜숙 분), 이상태를 사위로 둔 장민호(최정우 분)와 박옥순(송옥숙 분)의 이상태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은 '아이가 다섯'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작용했다. 여기에 이연태(신혜선 분)와 장진주(임수향 분)의 각기 다른 매력 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로 다가왔다.

이처럼 '아이가 다섯'은 개성만점 캐릭터로 가득했다. 싱글대디와 싱글맘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웃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그려냈다. 이에 사람 냄새나는 '아이가 다섯'이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마음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poolchoya@news1.kr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3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4 | MBC | 내일도 승리 |
| 5 | MBC | 최고의 연인 |
| 6 | KBS | 아이가 다섯 |
| 7 | MBC | 아름다운 당신 |
| 8 | SBS | 그래, 그런거야 |
| 9 | KBS | 장영실 |
| 10 | MBC | 천상의 약속 |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2016 테이스티로드 |
| 2 | KBS | 아이가 다섯 |
| 3 | CJ E&M |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

티보플레이 2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오빠 생각 | 임시완, 고아성 |
|---|-------|----------|

김민정 · 유라, '테이스티 로드' 자매 먹방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올리브 TV'의 간판 프로그램 '테이스티 로드'가 새 MC 김민정, 유라와 함께 새롭게 돌아온다.

2월20일 낮 12시 첫 방송된 올리브TV '2016 테이스티로드'가 김민정과 유라를 MC로 확정 지으며 새로운 먹방 자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출을 맡은 최정하PD는 "올해 '테이스티 로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숨어있는 맛집메니아들의 맛집리스트와 가이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맛집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라며 "맛집추천에 자신있다는 맛집메니아들의 맛집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만의 맛집 탐방 가이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reddgreen35@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a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k**
2. Full Plant 세팍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팍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매출 5만~7만, Asking **\$20,000**
7. 세팍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물과 뒷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허털,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5회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 이외수 '하악하악' 중에서

세상 나이를 늘이며 좋아지는 것들이 몇 있다. 그것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어려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알게 모르게 서로 견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가 알 듯 모를 듯한 아주 미미하고 세심한 정도의 것이지만, 파장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서로뿐만이 아닌 자식의 공부에까지 미치게 되고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진로가 결정되면서 서

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다. 그것은 바로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런저런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라는 생각을 한다.

원을 넘어 더욱 편안해지는 것 중 또 하나는 나보다 나이 든 언니들은 더욱 편안해 좋고, 젊은 동생들은 상큼한 생각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모르던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고맙고 즐겁다. 어찌 보면 또래보다는 언니와 동생들에게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기 편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기 편안하고 배울 것들이 더 많아 더욱 좋은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세상 나이를 늘이며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넓어지고 받아들이는 가슴도 넓어지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워 좋은 이유가 되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은근히 고집이 센 편이다. 남편은 '욱'하는 성격에 고집도 세다. 남편의 고집을 이길 수도 없을뿐더러,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은 더욱이 없다. 3월이면 결혼 27년을 맞이한다. 이렇듯 만난 지 30년이 다 되어가니 저절로 서로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주

고받는 것을 배워갈 뿐이다. 결혼 후 몇 년은 서로의 영역 넓히기에 바빠 명분 없는 싸움도 많이 했었다. 그런 시간이 있어 오늘이 있을 알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서로 툭툭 던졌던 말들의 상처로 가슴에 남은 생채기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가 감사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오늘이다.

그 어떤 것에 있어 자신의 선택은 중요하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비즈니스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내인 나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일(글쓰기, 사진, 여행 등)에 대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다. 세 아이의 진로 역시도 부모로서 의견은 나누었지만,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것은 부모로서 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할 테지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특별히 타국 멀리 와 사는 이민자들의 생활은 더

욱이 관계의 설정과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너무 가까이 오고 가면 무엇인가 속을 너무 보여준 느낌이랄까. 또한, 조금 멀리 가면 너무 소원해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관계란 것은 인생에서 늘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대나 바람이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서로에게 적당한 크기의 향아리(독)를 만들며 익어가는 삶이 길.

이렇듯 이 나이쯤에는 너무 큰 향아리(독)를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당한 크기의 향아리(독)를 선택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익어 발효되는 일에 더욱 시간을 들여야겠다. 무엇보다도 그 향아리에 무엇을 넣어야 할 일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간에 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세상 나이 오십 중반쯤에서 맞는 인생 2막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마음을 모아본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선비의 품격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스승님, 학자들의 성명을 들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듣던 외술 최헌배, 위당 정인보 선생. 성함을 듣는것만으로 가슴뛰는 일이기도 했다. 몇년이 흐른뒤, 위당의 평전을 읽었다. 선생은 일제 말기에 식솔들을 데리고 시골에 칩거했다. 일제말기 더러운 물에 물들기 싫으셨다는 뜻이었을 게다. 생활이야 곤궁하기가 짝이 없었을텐데, 덕분에 걸작을 남기지 않았나 싶다. 정녕 깨끗한 선비가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선생이 겨울이면 콧물을 흘리셨을거라는 말은 아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한다. 문사철文史哲도 있다. 선비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현대에는 과학과 예술도 포함되어야 할지 싶다. 예술이 문인이라 한다면 할말은 없다만 말이다. 종교를 철학의 범주에 넣는다면 그것도 할말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공부했던 옛

선비는 없는가? 정조대왕 시대에 흥대옹이 있었다. 그는 역학歷學과 산술과 천문에 능통했다고 들었다.

한마디 덧붙인다. 직이불사直而不肆라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 스스로 깨끗하면서도, 남에게는 거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선비의 덕목중에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갑은 갑이로되, 갑다운 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게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갑인게다. 선비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다.

"요놈, 요 쾌심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이희승, 딸각발이 중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20)



급격히 냉각했다. 자동차 온도계는 화씨 -20도를 찍었다. 사상초유의 추운 날씨라고도 했다. 지난 주말 보스톤 날씨였다. 그날 아침엔 콧물도 얼어붙는듯 했다. 추운 날씨엔, 양반이건 선비건 양민이건 콧물이 흘러나온다. 예전엔 뭐 그닥 콧물이 많았던지. 이희승 선생의 남산 딸각발이 글 중에 한대목이다.

‘두 볼이 아열 대로 아위어서 담배 모금이나 세차게 빨 때에는 양 볼의 가죽이 입 안에서 서로 맞닿을 지경이요,사철 없이 말간 콧물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진다. 그래도 두 눈은 개가 풀리지 않고, 영채影彩가 돌아서, 무력無力이라든지 낙심의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아래•

윗입술이 쪼그라질 정도로 굳게 다문 입은 그의 지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희승, 딸각발이 중에서)

어느 방송에서 봤다. 한국대학 교수는 스스로 민초라 했다. 글썄. 민초의 본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건가. 한술 더 떴다. 한국 국회의원 나으리는 스스로 소시민이라 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시민이라면? 어이구, 나으리니 한숨이다. 정치꾼들과 선비와는 서로 맞닿지 않는다. 오히려 소 닭처다 보듯 할지도 모르겠다. 대학교 교수라면 학자라 해야 할텐데, 민초(?)학자와 선비는 상호연관이 없는 건가.

상급학교에 처음 입학했다. 기라성 같은 선배

“탈모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청춘이 산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루트모발이식센터'...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자신감 회복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춘의 상징이 '머리카락' 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억압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표출의 방법으로 장발을 했고, 염색, 파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머리카락도 길러보고 염색도 하면서 모발을 혹사 아닌 혹사를 시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결혼도 연애도 취업도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탈모를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심리적 이유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탈모는 나쁜 것' 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창시절부터 탈모는 놀림의 대상이 된다. 대머리, 빗나리 등 여러 별명으로 놀림을 받기도 하고, 동네에 머리가 벗겨진 어른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쳐다보며 킁킁거리기도 한다.

탈모가 유독 한국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이유

이러한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양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유명 배우들도

탈모인 채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탈모가 취업이나 연애, 사회활동에서 단점이 되지 않는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탈모가 놀림이나 단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익숙함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백인 남성의 경우 탈모가 45% 정도지만 한국인의 탈모 비율은 25~30% 정도다. 하지만 탈모를 드러내고 다니지 않고 가발이나 모자 등 자신의 탈모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욱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탈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모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심각하리만큼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서 한 설문문에 따르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 1위가 탈모인 사람으로 꼽힐 만큼 연애에서 단점으로 지목 당했다.

실제로 모발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혼정보업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접 시 이력서의 사진과 다르게 탈모가 진행되었다고 지적을 당했다 등 알게 모르게 탈모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

다. 탈모에 좋은 천연삼푸, 두피마사지, 기타 헤어제품 등 탈모를 막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준다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초기 탈모에 예방효과는 있지만 없던 머리가 자라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젊은 탈모일수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지도 중요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질환이다. 유전적인 요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유전적 요인인 '키' 를 예로 들어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 키가 작다고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거나 키가 크다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유독 탈모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도 키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탈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탈모인들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자세와 콤플렉스로 인한 탈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탈모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특히 유전적 요인이 강한 사람의 경

우 스트레스나 식습관, 생활습관 등 다양한 탈모 촉발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모는 초기에 앞머리와 정수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탈모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뒷머리도 시간이 지나면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탈모일수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지도 중요하다.

루트모발이식센터의 이윤주 대표원장은 “스펙 6종, 스펙 7종 등 날로 쌓여가는 스펙쌓기 경쟁에서 머리카락마저 스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머리카락 때문에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가혹하다” 며 “탈모는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탈모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탈모를 가진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청춘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루트모발이식센터'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질환임에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속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된 사회현상이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강남역 1000m에 위치한
치과·정형외과·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료기관입니다.

구분	일반	특수	비고
진료비	4,000원	4,000원	50% 할인
진료비	10,000원	0원	100% 할인
진료비	10,000원	228,000원	2,000% 할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제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명제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구분	일반	특수	비고
진료비	4,000원	4,000원	50% 할인
진료비	10,000원	0원	100% 할인
진료비	10,000원	228,000원	2,000% 할인

세미치과
특별할인

구분	일반	특수	비고
진료비	4,000원	4,000원	50% 할인
진료비	10,000원	0원	100% 할인
진료비	10,000원	228,000원	2,000% 할인

에이그
특별할인

구분	일반	특수	비고
진료비	4,000원	4,000원	50% 할인
진료비	10,000원	0원	100% 할인
진료비	10,000원	228,000원	2,000% 할인

HURAM
Medi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1. 리틀 빅혼 강 전투와 카스터 (4)

시팅불과 크레이지 호스에 의한 카스터 부대의 전멸 (계속)

미국 서부개척 역사에서 카스터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는 술한 화제와 전설을 남기고 간 풍운아 같은 별난 군인이었다. 웨스트포인트 재학시절 학교성적은 늘 꼴찌였으며 징계를 워낙 많이 받아 퇴학되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마침 때맞추어 터진 남북전쟁이 카스터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카스터와 같은 3학년 생도들은 모두 한 해 먼저 3년 만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투현장으로 배치되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 카스터는 많은 전설을 만들어 냈는데 23살의 나이에 비록 임시계급이지만 소장까지 진급하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는 중령의 계급으로 제7기병대장을 맡아 1868년 11월말 와시타 강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며 승승장구하였다. 이번의 리틀 빅혼 강 작전에 참가하면서는 그가 가장 아꼈던 인디언 정찰병 Bloody Knife와 또 다른 몇 명의 아리카라족(Arikara) 정찰병에게 “이번 작전이 카스터의 마지막 참전이 될 것이며 장래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아리카라족을 보살펴주겠노라” 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앤드류 잭슨도 전쟁 영웅에서 대통령이 됐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이던 그랜트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런 포부를 가질 만도 했을 법하다. 그 말이 사실이라

면 카스터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디언 작전에서 무리수를 두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전투에서 인디언은 역사상 가장 크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인디언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백인들이 아니다. 인디언들에 대한 적개심은 더 높아지고 군대는 보다 강도 높은 전면전을 치를 각오를 다졌으며 블랙힐즈를 뺏기 위한 공작에는 더 속도가 붙었다.

파하 사파 결국 백인의 수중으로

인디언들은 전투가 끝나자마자 예상되는 보복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캠프를 철수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시팅불의 무리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고 크레이지 호스 무리는 남동 방향으로 떠났다. 이들은 미군 기병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빠져나온 길에 불을 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때 캠프에 있던 인디언 중 상당수는 빠져나왔던 인디언 주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 600명 정도의 전사들만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대적 인디언으로 계속 남았다.

카스터 부대가 대패했다는 소식이 동부의 백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이것을 인디언들이 저지른 야만적인 학살행위라고 비난하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우두머리인 시팅 불과 크레이지 호스는 여전히 인디언보호구역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기에 처벌할 길이 없었으므로 이번 전쟁과는 무관한 주거지역 안에 살고 있는 애꿎은 인디언들이 분풀이 대상이 되었다. 모든 주거지역을 미군이 직접 관할하며 모든 인디언들은 전쟁포로로 취급하고 급기야 8월 15일에는 미국 의회가 파우더강 유역과 블랙힐즈에 대한 권리를 인디언들이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백인들의 논리로, 인디언들이 미군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1868년의 라라미조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인디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사실은, 인디언들이 미군을 먼저 공격한 바가 전혀 없으며 리노의 부대가 먼저 캠프의 남단으로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인디언 전사들이 인디언 마을과 부족을 지키기 위하여 강너머에서 마을 쪽으로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카스터의 부대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9월에는 그랜트 대통령이 새로 제정된 그 법률 안에 서명하고 인디언들로부터 블랙힐즈를 양도받기 위하여 새 협상대표단을 네브래스카



〈레드 클라우드 에이전시(Red Cloud Agency)〉

화이트강가에 있는 레드 클라우드 에이전시

(Red Cloud Agency)로 파견했다.

대표단이 가져온 새 조약안은 노골적인 협박성 문건이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블랙힐즈와 그 북녘의 땅을 양도하고, 미주리 강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식량을 배급받고, 블랙힐즈로 통하는 세 개의 도로 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흔히 이를 ‘팔래? 굶을래?(Sell or Starve?) 정책’ 이라고 부른다. 들소사냥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길도 막아 놓은 상태에서 정부로부터의 식량배급마저 중단된다면 인디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추장들과 부족민들은 백인들이 해왔던 전력을 잘 아는 터라 이제 블랙힐즈를 지켜내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만 주거지역을 미주리 강 쪽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심하게 반대하였다. 인디언들의 주거지역은 그동안 수차례나 이동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 울창하던 나무숲을 다 베어버려 황량하기 짝이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다시 옮겨 가라니 도무지 받아들이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라라미조약을 고쳐 블랙힐즈를 백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수우족 성인 남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당수 전사들이 시팅불과 크레이지 호스를 따라 주거지역 밖에 나가 있으므로 조약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디언들은 계속 버텼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9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의 대역본(이종욱), [지소는 보도왕후의 딸로 임종공의 부인이 되어 진흥대왕을 낳았는데, 법흥대왕이 옥진공주를 사랑하여 진흥대왕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할 뜻이 없었기에, 지소는 걱정이 되었다. 위화랑이 이에 대의로써 옥진을 깨닫게 하여, 진흥을 왕으로 삼게 했다. 그 때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써 사도태후 또한 무사했다. 위화랑공의 덕이 컸다.]

지소는 법흥왕과 보도왕후 사이의 딸이며 삼촌인 임종과 결혼했다.168) 그리고 후일 신라의 국토를 확장하고 중흥시키는 결출한 진흥왕을 낳았다. 하지만 김삼맥종(진흥왕)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먼저 법흥왕과 정비인 보도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적자가 없었다. 그리고 수 많은 후궁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두명 뿐이었다. 장남은 옥진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비대공이고, 차남은 보과공주에게서 태어난 모랑공이다. 옥진은 위화랑과 오도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법흥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보과공주는 부여씨로서 백제 동성왕의 딸이다. 법흥왕이 옥진을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로 왕위를

옥진의 아들인 비대전군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그래서 지소는 왕위가 후궁의 자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지증왕의 적손인 자신의 아들로 잇게하려고 많은 정치를 하였다. 특히 남편 임종이 죽고 없는 가운데서도 왕위를 어린 진흥에게로 잇게한 그녀의 정치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위화랑은 법흥왕의 후궁 옥진이 자신의 딸이기에, 지소의 뜻과 왕궁내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옥진을 설득하였다. 즉 의義를 위하여 사私를 버린 위화랑의 현명한 판단은 신라를 중흥시키는데 디딤돌이 되었던 화랑도의 수장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왕궁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위가 진흥왕에게로 이어짐이 대의라고 보았지만, 그 대업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사도태후思道太后 또한 무사하였다. 以此思道太后亦無事이차사도태후역무사”라는 문장은 예사롭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왕위쟁탈전에서 진흥이 아니고 비대공에게로 넘어 갔다면 지소를 필두로 김삼맥종을 옹립하려 했던 무리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태후 박씨 부터 시작되어 왕실에 왕비를 공급한 대원신통의 계통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도태후 또한 비대공과 같은 어머니인 옥진의 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옥진의 첫남편 박영실朴英矢이고 비대공과는 아버지가 다른 오누이다. 사도가 진흥왕과 결혼하는 것을 진흥의 어머니 지소는 반대했다. 그것은 아마도 왕실에 왕후와 후궁을 공급하는 계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씨 지소 역시 왕실에 왕비를 공급했던 또 하나의 계통인 진골정통의 시모始母이다. 그 후 신라 왕실의 왕후와 후궁들은 모두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에 의한 두 계통에서만 공급되었다. 즉 진골정통은 지소태후의 딸들과 외손녀들 그리고 그들의 딸들로 이어졌고, 대원신통은 사도태후의 딸들과 외손녀들 그리고 그들의 딸들로 이어졌다.

[위화랑의 자손은 매우 많았다. 장녀인 옥진공주와 차녀인 금진부인은 곧 오도부인이 낳았다. 옥진은 처음에 영실공에게 시집 갔으나, 얼마 안 있어 법흥대왕의 사랑을 받아 비대공을 낳았다. 대왕이 비대공을 태자로 삼고자 하자, 공이 그것을 말리며 말하기를 “신의 딸은 골품이 없고 또 영실과 더불어 함께 살았으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다. 법흥이 죽자 지소태후가 비대공의 왕자의 지위를 낮추어 공사公祀를 받들게 했다. 비대공의 딸인 개원공주는 동륜태자를 섬겨 아들을 두었다.]

168) 후대의 사가들 뿐만 아니라 못사람들

로 부터 진성여왕과 함께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지소태후는 정식 남편만 4명이나 두었다. 첫째 남편 임종 같은 왕은 법흥왕의 동생으로 진흥왕을 낳았다. 그들의 딸 만호태후는 동륜태자의 아내이며 진평왕의 어머니다. 둘째 남편 태종 이사부와는 세종전군(제6대 풍월주)을 낳았고, 딸 숙명공주는 동복 오라비 진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그리고 아들 이차돈이 있다.(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긴 이차돈이 아니다) 그리고 세째 남편이 박영실이다. 옥진공주의 첫남편인 그 박영실이다. 지소는 박영실을 좋아하지 않았고 법흥왕의 명에 따라 계부繼父로 맞이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송화공주가 진평왕의 왕후인 마야부인이다. 그리고 네째 남편이 구진인데, 구진은 침신枕臣으로 불린다. 즉 지소가 박영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남편이었고, 또 다른 남편 구진을 들러서 지소의 성생활을 만족시켰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보명공주가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의 후궁이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상담 및 문의 :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대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남: 65만원 / 여: 75만원

VIP 입원 종합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당일 종합검진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남: 50만원 / 여: 60만원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CT +
복부초음파 + 비탄력성 호르몬 +
호르몬치환요법(갑상선, 부갑상선, 골밀도)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고객 : 특별서비스 제공

① 전원환원 : 입원환원, 퇴원환원, 호르몬치환요법, 호르몬치환요법
② 전원환원 : 입원환원, 퇴원환원, 호르몬치환요법, 호르몬치환요법
③ 전원환원 : 입원환원, 퇴원환원, 호르몬치환요법, 호르몬치환요법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8시간)
- 당일 종합검진: 3pm~5pm (2시간)
- VIP 종합검진: 2pm~4pm (2시간)
- VVIP 종합검진: 2pm~4pm (2시간)
- VVIP 종합검진: 2pm~4pm (2시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1:1 에스코드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첨단장비를 통한 보다 신빙성 있는 조기진단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와 시술 및 판정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55만원 → 49만5천원	59만원 → 53만1천원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100만원 → 90만원	100만원 → 90만원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숙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500만원 → 450만원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100만원 → 90만원	100만원 → 90만원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2. 심전도 검사 (심전도 12도)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TG, FP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4. 흉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5. 심박기능 검사 (심부 X-Ray, EKG, 노르에피네프린)
6. 요 검사 10종	6. 요 검사 10종
7. 제2형 당뇨병 검사	7. 제2형 당뇨병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9. 소화기 검사 (위수련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낭, 담관)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r.com / www.huramkorea.com

보스톤 **코리아**
617.955.9112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100% 전자기파 차단 기능으로, 한국산업안전연구원(KRISS)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국내 유일의 EMF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꾸준히 잠자리에서 낮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아랫목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34년 기술력

아랫목 온수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보일러와 매트 분리되어
접고 간단하게 안전

싱글사이즈

퀵사이즈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확실한 무소음 보증

- 자기도 일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01 골든크레드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 뚫!

02 보일러가 없으니 소음 걱정 뚫!

03 2중 안전 케이블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뚫!

04 스레드 가닥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뚫!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을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0) 인덱스카드(Index Card)

인덱스카드의 크기는 가로 6인치와 세로 4인치입니다.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조각 위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재정계획을 적어 놓았습니다. 인덱스카드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 교수인 하롤드 폴락(Harold Pollack)입니다. 하롤드는 본인이 직접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알게 된 재정지식을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인덱스카드”의 공동 저자인 헬레인 오렌(Helaine Olen)은 재정 설계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내용의 책(Pound Foolish)을 발표해서 금융업계를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인덱스카드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재정계획이 무엇이며 투자할 때 무엇을 추천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어봅니다.

* 수입의 10~20%를 우선 저축해야 합니다. 은퇴하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후

회하시는 분을 현재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만났습니다.

* 신용카드는 매달 100% 갚아야 합니다. 만일 갚을 수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이자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는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하십시오. 일부 투자자는 경비와 상관없이 수익률만 더 높으면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 재정 설계사를 고용할 때 휘듀서리(fiduciary duty)의 의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 설계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일할 것이라고 일반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익

보다 재정 설계사 본인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휘듀서리 의무가 있는 재정 설계사는 약 15%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재정 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401k, 403b, TSP, IRA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2016년 봉급 액수에 상관없이 직장 은퇴플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8,000이며 나이가 50 이상이면 \$6,000을 더할 수 있습니다. IRA는 부부가 각자 \$5,500이며 50 이상이면 \$1,000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회사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주식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은 어느 회사 주식일까요? 애플, 코스코, 존슨앤 존슨, 아마존, 전부 아닙니다. 벨켄(Balchem)이란 회사입

니다. 30년 동안 무려 107,099%로 불어났습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가 30년 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없다면 개별적인 주식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 집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구매해야 합니다. 집을 사들이기 전 집 가격의 20%를 낼 수 있고 수입 없이 몇 개월 살 수 있는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 때 사야 합니다.

* 보험은 필요하지만 절대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나 집 보험은 높은 디덕터블(deductible)로 해야 보험비가 적어집니다. 이 말은 운전조심, 불조심 등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은 텀(term life)보험을 추천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정계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규제법 및 선동 금지법 (1798): 그 법의 숨은 뜻

권리장전

건국 직후인 18세기 말엽,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이슈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유럽과의 외교적 입장을 꼽고 싶다. 권리장전은 1791년 미국 헌법의 첫 수정 조항으로 편입되는 10개 조항으로, 제헌 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각주와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수정 헌법 제 1조로 자리 잡았다.

권리장전은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직후, 제헌회의가 가결한 헌법을 비준하는 문제를 놓고 연방파(Federalists)와 반연방파(Anti-federalists) 간에 벌어진 격렬한 논쟁의 귀결이었다. 연방파가 주도한 제헌회의에서 탄생한 헌법 초안에 대해, 반연방파는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개인과 주의 권리를 명시하는 권리장전이 헌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헌법 초안을 비준할 수 없다고 맞섰던 것.

프랑스 혁명과 미국 정치

그런데 1789년 발생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건국 초기 미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프랑스에 공화정부가 탄생하자 공화제에 반대하는 유럽각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대프랑스 동맹을 구축하고, 나폴레옹이 이끄는 유럽 정복 전

쟁에 나서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적대국이 되었다. 이 때, 연방당은 암묵적으로 친영의 입장을 민주공화당은 친프랑스의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공화당의 논리는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1776년 프랑스-미국 동맹(Franco-American Alliance)에 의거, 영-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과의 무역 통상이 중요한 북동부의 상업자본가들이 주요 지지층인 연방당으로서 혁명 이후의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미국 동맹을 맺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립을 지키고자했다.

당시 프랑스-영국 간의 고래 싸움에서 등이 터지는 신세가 된것은 유럽 해역을 지나 는 미국의 상선들이었다. 특히 영국의 군함이 프랑스-미국간의 교역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상선을 공격하는 사건이 빈번했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존 제이(John Jay)를 파견하여 영-미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며, 그 결과(다소 굴욕적일 수도 있는) 제이 조약(Jay's Treaty)을 체결한다. 같은 시기 스페인 역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스페인-미국간 영토 분쟁을 정리하고 미국과 스페인 식민지 간의 경계에 있는 미시시피 강에 미국의 항해권을 보장하는 강화 조약인 핑크니 조약(Pinckney's Treaty)을 맺었다.

영국과의 제이 조약, 스페인과의 핑크니 조약을 맺은 미국에 대해 프랑스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당연지사. 이에 1797년, 미국은 존 마셜(John Marshall)과 토머스 핑크니(Thomas Pinckney)를 프랑스에 특사로 파견하여,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꾀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외무장관 샤를 모리스 드 탈랑과의 공식 회담을 요청한 미국측 대표에게 각각 이름 대신 X, Y, Z라는 가명을 내세운 대리인들이 공식 회담 성사와 협상을 땃가로 25만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 여기서 격노한 미국 특사들은 “방위를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도 쓸 수 있지만, 조공으로는 단돈 1센트도 쓸 수 없다”(Millions for defense, but not one cent for tribute.)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 제이와 핑크니는 국민 영웅이 되었으며, 반프랑스 정서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미국-프랑스 관계는 유사 전쟁(Quasi War)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선동금지법의 위헌성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국적인 반프랑스 정서에 힘입어 연방당이 장악한 5대 의회는 외국인 규제법과 선동 금지법(Alien and Sedition Acts, 1798)을 통과시키고 연방당 출신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가 이를 승인했다. 이민을 차단하고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추방하는 외국인 규제법의 주요 타겟은 프랑스 이민자들이었다. 또한 선동금지법은 연방 정부에 대한 악

의적인 혹은 그릇된 발언을 하는 국민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였다.

표면상 자국의 안녕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 규제법 및 선동 금지법의 속내는 사실 다른 데 있었다. 즉, 이 법안들의 실제 목적은 친프랑스 입장을 견지해왔던 민주공화당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고, 민주공화당의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노골적인 견제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을 근거로 추방당하거나 처벌 받은 이들은 친공화파 인사들이었다. 또한 이 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 즉, 선동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보기에 따라서는 수정헌법 10조가 명시한 중앙정부가 위임받은 권리를 넘어서 월권행위였기 때문이다. 이후 제퍼슨을 당선시킨 1800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는 전쟁에 가까운 분열의 혼란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2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의장 직권상 정될 상황을 마주한다. 테러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상으로는 국정원의(법으로 위임받은 권리를 넘어서)국민의 사생활과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위협조치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법률, 헌법도 절차도 토론도 무시하고 밀어부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수시 모집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리스 계약서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하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구두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스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큰 효력을 갖는 계약서이다. 리스 계약서에 따라, 각종 권리나 책임이 규정된다는 뜻이다. 집 주인(혹은 부동산 소유 회사)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리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하는데, 특히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집(혹은 아파트 유닛)을 비울 때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면, 집 주인 혹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은 리스를 연장할 것인지, 혹은 집(유닛)을 비울 것인지 등을 묻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묻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원래 리스계약서에 따라 집을 비우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리스 계약서를 보면, 심중팔구는 더 이상 렌트한 아파트나 집에 살지 않을 때는 집을 비우겠다는 통보를 아파트 주인 혹은

집 주인 측에 하게 돼 있다. 이 같은 '퇴거 통보'는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한달 전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런 퇴거 통보는 보통 문서로 하게 돼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렌트 계약이 끝나는 기간 한달 혹은 두 달 전쯤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집주인에게 말(구두)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리스 계약서에는 이 밖에도 특정 규칙이나 조항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입자(임차인)로 하여금 집을 강제로 비우게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예컨대, 매월 납부하는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들이 낱낱이 리스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특히 잘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집주인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 측도 마찬가지이다. 리스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세입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가령, 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그런 예다. 단순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도 명시되는 게 보통이다. 또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사무실 혹은 작업장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 등도 확실히 해야 한다. 수리나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책임 범위 등도 확실히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소모품은 보통 주인(회사)측이 해주게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집(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 계약 기간도 9개월, 12개월 등의 형태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몇 일 등의 방식으로 최초 입주 일자과 계약이 만료되는 최종 일자가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주변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잡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듣게 되면 힘든 공부를 마쳤음에도 고민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민법도 다루고 있는 종합로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교수 자리만 잡으면 영주권도 쉽게 나오고 잘 풀릴 거야”, “그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응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교수가 되면 영주권 절차가 간소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의 기본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미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 교수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인재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의 경우 이민 2순위 중에서도 조금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위한 영주권 2순위를 흔히 ‘EB-2 Special Handling Case’ 라고 부르며 여기에서는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 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와 대학교수 케이스 모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며 외국인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케이스와 대학교수케이스는 고용주가 증명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채용 과정에서 다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보다 나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인 대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과정과 외국인 교수에 대한 추천서 등을 포함하면 해당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EB-2 Special Handling Case” 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심사(Competitive selection process)를 통해 교수로 선발 되었어야 하며 종신 재직권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Tenure track teaching positio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직(Researchers)은 일반적인 EB-2케이스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EB-2 Special Handling Case” 로 진행은 힘듭니다.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 간단하고 포함해야 하는 참고 자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과정에서 전문잡지(Professional journal)에 광고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하며 교수로 결정된 지 18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제출되어야 특별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로 뽑혀 재직하지 18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혹은 고용 과정에서 필요한 광고를 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2순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주권 진행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EB-2 Special Handling Case)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혹은 고 학력자의 영주권 진행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상담 및 문의 : 보스턴 **코리안** T.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달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정
- ◎ 신속한 외래진료 협연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6월 30일(목)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50세미만] 55만원 → 49만5천원 신체계측, 체지방분석, 안저검진, 안저, 사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알부민,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립선, 당뇨병(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중성지방지질,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대두, 아미스, 소변, 대변(암혈, 기생충),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즈), 식생활평가	[50세미만] 59만원 → 53만1천원 신체계측, 체지방분석, 안저검진, 안저, 사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알부민,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립선, 당뇨병(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중성지방지질,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대두, 아미스, 소변, 대변(암혈, 기생충),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즈), 식생활평가, 악성종양생물표지자, 유방촬영, 여성비밀보
[50세이상] 67만원 → 60만3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전립선암(PSA) (자선량)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50세이상] 69만원 → 62만1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전도, 자동초음파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100만원 →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00만원 → 90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0만원 → 135만원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110만원 →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10만원 → 99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4만원 → 138만원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200만원 → 180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 - 심장촬영CT 300만원 → 270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VIT-D,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촬영, 뇌 MRI&MRA, 저선량흉부CT, 관상동맥CT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220만원 → 198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 - 심장촬영CT 320만원 → 288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저선량흉부CT

숙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균(항체),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남성정밀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변형촬영, 치아X-선촬영	500만원 → 45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균(항체),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여성정밀 :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변형 촬영, 치아 X-선 촬영

★ 토요일검진 :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증진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턴 **코리안**
617.955.9112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박소들, 런드롬렛(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제
합상 리스형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런드롬렛 연매상 \$500,000 부동산 포함 매매가격 \$1,200,000

런드롬렛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채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렛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일식당 풀 비어/와인 리커 면허증, 연매상 \$600,000 매매가 \$200,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렛+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여가활동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1.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입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일처리

각종 경시대회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